

고1 국어  
신사고

2022 고1 국어 신사고 | 6(1)(2) 엄마의 말뚝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제 유형 베스트

1. 「엄마의 말뚝」의 내용을 묻는 문제
2. 「엄마의 말뚝」의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
3. 다양한 관점을 바탕으로 「엄마의 말뚝」을 감상하는 문제, 창작 배경을 고려하여 제목과 작품 속 표현의 의미를 해석하는 문제

지문 분석 - 엄마의 말뚝

[앞부분의 줄거리] 어느 날 외출에서 돌아온 '나'(서술자)는 **친정어머니**(86세의 고령임)가 눈길에 넘어져 크게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간다. 다리 **골절**(뼈가 부러짐)로 수술해야 한다는 진단을 듣고 **노령**(늙은 나이)의 어머니가 큰 수술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난다. 가족들을 보내고 홀로 병실에 남은 '나'는 어머니의 마취가 풀리기를 기다리다가 잠시 잠이 든다.

▶ 발단 - 친구를 만나기 위해 외출한 '나'는 계속해서 불길한 예감이 들

▶ 전개 - 외출에서 돌아온 '나'는 가족들에게서 **친정어머니가 눈길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갈 얼마나 잦는지 몹시 슬렁이는 기미**(어머니가 환각 상태에서 두 손을 허공에 휘젓고 있음)에 퍼뜩 깨어났다. **병실은 소리 없이 슬렁이고 있었다.**(결과) **어머니가 두 손으로 허공을 휘젓고 있었던 것이다.**(원인: 병실이 슬렁였던 이유) 그러나 무작정 휘젓는 헛손질하곤 달라 보였다. **열심히 무슨 일인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신중하고도 규칙적이었다.**(빨래를 분류하고 개는 행동을 함 → 어머니의 마음 속에 남아있던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남, **내용 일치**를 묻는 문제에서 '어머니는 허공에서 빨래를 개키는 행동을 하고 있다.'의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본문의 내용과 선지의 일치 여부를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나**(서술자)는 **찬물을 뒤집어쓴 것처럼 잠이 달아나 버린 것을 느끼며**(인물의 심리를 비유법을 통해 드러냄) 화들짝 몸을 솟구쳐 우선 불 먼저 켜다. 어머니는 얼굴을 잠깐 찌푸렸지만 **두 손으로 하던 일**(두 손으로 허공을 휘젓는 것)만은 멈추지 않았다.

“엄마, 뭐 해?”

**나도 모르게 어릴 때의 말투로 물었다.**(수십 년 전으로 돌아간 어머니의 모습 때문에,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서 '작품 밖의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와 행동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의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 “보면 모르냐? 빨래를 했으면 윗도리는 윗도리, 뽀얀 것은 뽀얀, 양말은 양말끼리 **개켜**(웃이나 이부자리 등을 겹치거나 접어서 단정하게 포개어) 놔야지 한데 쑤셔 박아 놓으면 쓰냐?” ]([ ]: 어머니의 의식이 어린 남매를 키우던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가 있음, 과거의 일상적 행위)

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차고 또렷했다.

“빨래라뇨? 좀 주무시지 않고…….”

**“이걸 이 모양으로 늘어놓고 잠이 와? 못된 것들.”**(어머니의 상태: 환각)

[ 어머니가 썩하는 썩소리를 내면서 나를 쳐다보았다. 눈의 푸른 기가 한층 깊어져서 **귀기(鬼氣)**(귀신이 나타날 것 같은 무시무시한 기운)가 감돌았다. ]([ ]: 어머니가 환각 상태에 있음을 보여줌) **나는 불현듯 도망가 구원을 청**

**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혼자 어머니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임을 예감함, 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함) 어머니의 손놀림은 허공에서 분주하게 빨래를 분류하고 개키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기세가 등등했다. 하루 전부터의 금식, 관장, 마취, 대수술 끝에 느닷없이 그런 기운이 솟다니. **나는 놀랍다기보다는 다리가 후들덜 만큼 겁부터 났다.**(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함) 이때 **간호원**(간호사의 전 용어)이 들어왔다.

▶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난 어머니가 환각 상태를 보임

[ “어머니가 좀 이상하세요. **들입다**(세차게 마구) 헛손질을 하시고 헛것도 보이시는 모양이에요.”

**“마취 끝에 더러 그런 환자들도 있어요. 차차 나아지겠죠.”**(어머니의 상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음, **내용 이해를 묻는 문제에서 '간호원은 어머니의 상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의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간호원은 심드렁하게 말하고 체온과 맥박을 확인하고 나가 버렸다. 나는 따라 나가서 어머니가 주무시게 해달라고 졸랐다.

**“아까도 그러셔서**(마취에서 깨어난 어머니가 불면을 호소하자 ‘나’는 이를 간호원실에 알렸고, 인턴이 알약(신경 안정제)한 알을 가져다주었음) **약**(신경 안정제)을 드렸잖아요?”

**“그 약이 안 듣잖아요. 참, 그 약 잡숫고 더하신 것 같아요. 맞았어요. 그 약을 드시기 전엔 잠은 못 주무셔도 헛것을 보시진 않았어요.**(어머니가 약의 부작용으로 헛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함) **어떡하면 좋죠?”**

“그럴 리는 없지만, 혹 그 약의 부작용이라고 해도 별일은 없을 테니까 안심하세요. **임상**(환자를 진료하거나 의학을 연구하기 위하여 병상에 임하는 일) 시험 결과 가장 부작용이 없는 걸로 알려진 신경 안정제를 **투약**(약을 지어 주거나 씹)했을 뿐이니까요.”

**“이것보다 더 큰 별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어머닌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니까요.”**(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심상치 않게 여김)

“차차 나아지실 거예요.”

**“그까짓 신경 안정제 말고 수면제를 주든지 주사를 놓아 주든지 하세요.”**(어머니의 모습에 겁이 난 ‘나’는 간호원에게 수면제나 주사를 요구함)

“그럴 순 없어요.”

“아니, 이 큰 병원에서, 별의별 수술을 다 하는 대중합 병원에서 그래 잠 못 자 고생하는 환자 잠도 못 재워준대서야 말이 돼요?”

“환자를 위하는 일은 우리가 더 잘 알아서 하고 있으니 가족들은 협조를 해 주셔야지 **덮어놓고**(옳고 그름이나 형편 따위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떼를 쓰시면 어떡해요?” **】**([ ]: 인물 사이의 갈등 - 어머니의 이상 행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나’와 ‘간호원’ 사이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음)

**간호원이 획 돌아서면서 쏘아붙였다.**(‘나’와 간호원 사이의 갈등) 나는 **무안하고 노여워서**(자신의 요구가 매몰차게 거절당한 데 따른 심리, **구절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에서 '간호원에 대한 서술자의 심리가 간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의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작품의 서술자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다시는 네 따위에게 **애걸**(哀乞)(소원을 들어 달라고 애처롭게 빙)을 하나 봐라, **중얼중얼 뇌까리며**(불쾌하다고 생각되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 태도에 대하여 불쾌하다는 뜻을 담은 말을 거듭해서 자꾸 말하며) 돌아왔다.

▶ 어머니의 상태를 걱정하는 ‘나’와 달리 간호원은 어머니의 상태를 대수롭지 않게 여김

아직도 빨래를 덜 개켰는지 허공에서 규칙적인 손놀림을 계속하고 있던 어머니의 손이 불안간 나를 향해 두 손바닥을 보이며 **방어의 자세**(인민군 군관으로부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를 취했다. **푸른 귀기가 돌던 두 눈이 극단적인 공포로 튀어나올 듯이 확대됐다.**(어머니의 눈앞에 무언가 고통스러운 장면이 환각으로 펼쳐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과거 일상적 행위를 하던 상황에서 갑자기 공포의 대상을 만났을 때로 의식이 바뀌었음)

“왜 그래, 엄마!”

나는 덩달아 무서움에 떨며 어머니한테로 달려갔다. [ 어머니의 팔이 내 목을 감으며 용을 쓰는 바람에 나는 숨이 각 막혔다. **굉장한 힘**(아들을 지키려는 힘)이었다. **】**([ ]: 환각 속에서 아들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씀) 숨이 막혀 허덕이는 나의 귓전에 어머니는 지옥의 목소리처럼 공포에 질린 소리로 속삭였다.

**“그놈**(아들을 죽인 인민군 군관)이 또 왔다. 하느님 맙소사. 그놈이 또 왔어.”

어머니는 아직도 한 손으로 방어의 **태세**(어떤 일이나 상황을 앞둔 태도나 자세)를 취한 채 문 쪽을 보고 있었다. 나는 혹시 내 뒤에 누가 따라 들어왔는가 해서 돌아다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순간 머리끝이 주뻗었다.**(어머니의 이상 행동으로 인해 공포에 휩싸임)

“엄마!”

무서움증이 큰 힘이 되어 나는 어머니의 팔에서 벗어났다. 어머니는 악귀처럼 무서운 형상을 하고 와들와들 떨면서 **문 쪽**(어머니가 환각 속에서 공포를 떨게 하는 대상이 있는 쪽)을 보고 있었다. 문 쪽엔 아무도 없었지만 어머니는 혼신의 힘으로 **누군가**(아들을 죽인 인민군 군관)와 대결을 하고 있었다. **순간 나는 저승의 사자가 어머니를 데리러 와 거기 버티고 서 있는 게 어머니에게만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어머니가 환각으로 본 것은 군관이지만, 아직 그 사실을 모르는 ‘나’는 저승사자일 것이라고 생각함) **피가 얼어붙는 것처럼 무서워서 감히 그쪽으로 발을 옮길 수도 없었다.**(죽음을 이끄는 존재에 대한 공포와 참혹한 고통에 시달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극심한 두려움을 느낌) 그러나 누구한테 구원을 요청할 **가망**(될 만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희망)도 없었다. [ 여든여섯의 노인의 병실을 저승의 사자가 넘보는 건 당연했다. 오늘의 수술 환자 중에서뿐 아니라 이 거대한 종합 병원에 입원한 모든 환자 중에서도 어머니는 최고령일지도 모른다. ]([ ]: ‘나가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이유’ 그만큼 분별이 있는 **저승의 사자**(‘나가 생각하는 공포의 대상’)라면 양탈을 해 봤겠지일 것 같았다. **나는 이미 저승의 사자한테 어머니를 내줄 각오를 하고 있었다.**(고령인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 여든여섯이면 누가 감히 **천수**(천명, 타고난 수명)를 **못 누렸다 하라.**(‘나’는 어머니가 천수를 누렸다고 생각함) 다만 [ 몸에 큰 칼자국을 내고 거기서 나는 **선혈(鮮血)**(생생한 피)이 아직 마르기도 전 ]([ ]: 큰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에 끌고 가려는 게 괴심하지만 세상의 죽음치고 그 정도의 **여한**(풀지 못하고 남은 원한)도 자식에게 안 남기는 죽음이 어디 있으랴. [ **각오는 하고 있으니 제발 네 모습을 어머니에게 보이지만 말게 해 다오.**(어머니가 돌아가시더라도 극한의 공포를 느끼지 않기를 바람 - 어머니의 내면을 완전하게 이해한 것은 아니며, 자식으로서 말하는 것임) 백 살을 살다 죽어도 죽기는 싫은 게 인간의 **상정(常情)**(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보통의 인정)이라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네 모습만은 드러내지 않는 게 저승의 사자 된 도리요, 유일한 자비가 아니더냐. **사라져라, 제발. 휘이 휘이.**(저승사자가 사라지기를 바람) ]([ ]: ‘나가 속으로 저승사자에게 비는 말,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서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여 인물의 내면적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의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참혹한**(비참하고 끔찍한) 공포를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어 이렇게 속으로 부르짖었다. **그놈**(저승사자, 사실은 군관임)이 내 눈에까지 보이는 일이 일어날까 봐 더더욱 겁이 났다. 그러나 **그는 사라지기는커녕 다가오고 있음이 분명했다.**(저승사자가 어머니를 데려가기 위해 가까이 오고 있다고 여기고 있음) 어머니의 부릅뜬 눈동자의 초점 거리가 그걸 말해 주고 있었다. 맙소사, 나 혼자 어머니의 **입중**(부모가 돌아가실 때 그 곁에 지키고 있음)을 지키게 되다니.

▶ ‘나’는 어머니의 상태가 나빠져 곧 돌아가실 것이라고 생각함

[ “**그놈**(군관) 또 왔다. 뭘 하고 있냐? **느이 오래빌**(한국 전쟁 중 죽은 ‘나’의 오빠, **작년과 달리 어머니가 가리키는 대상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숨겨야지, 어서.”

“엄마, 제발 이러시지 좀 마세요. 오빠가 어디 있다고 숨겨요?”

“그럼 느이 오래빌 벌써 잡아갔냐.” ]([ ]: 과거 전쟁 당시 인민군 군관이 집에 찾아왔던 때의 의식으로, 어떻게든 아들을 숨기려 함)

“엄마, 제발.”

**어머니의 손이 사방을 더듬었다.**(아들을 찾기 위한 행동) 그러다가 봉대 감긴 자기의 다리에 손이 닿자 날카롭게 속삭였다.

“**가연은 내 새끼 여기 있었구나. 꼼짝 마. 다 내가 당할 테니.**”(어머니가 환각 속에서 자신의 다리를 아들로 여기고 있음, **내용 이해를 묻는 문제에서 ‘어머니는 수술한 다리를 죽은 아들과 동일시하고 있다.’의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다리를 감싸는 **시늉**(어떤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내어 꾸미는 짓)을 했다. 그때부터 어머



니의 다리는 어머니의 아들이었다. 어머니는 온몸으로 그 다리를 **엄호(掩護)**(덮거나 가려서 보호해줌)하면서 **어머니의 적**(아들을 죽인 인민군 군관)을 노려보았다. **어머니의 적은 저승의 사자가 아니었다.**(‘나’가 사실을 알아차림)

**“군관 동무, 군관 선생님, 우리 집엔 여자들만 산다니까요.”**(군관이 아들을 찾으려 하자 어머니가 군관을 높여 부르며 비굴하게나마 아들을 지키려고 함)

**어머니의 눈의 푸른 기가 애처롭게 흔들리면서 입가에 비굴한 웃음이 감돌았다.**(아들을 지키기 위해 군관에게 비굴하게 행동함) [ 나는 어머니가 환각으로 보고 있는 게 **무엇**(아들을 죽인 군관)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가연은 어머니, 차라리 저승의 사자를 보시는 게 나았을 것을…….**(어머니에 대한 ‘나’의 안타까움, ‘나’는 어머니의 마음 속에 한이 되어 남아있는 기억에 대해 알고 있음) ]([ ]: 어머니에게는 자신의 목숨을 거두러 오는 저승사자보다 아들의 목숨을 빼앗으러 오는 군관이 훨씬 더 공포스러운 존재임)

**어머니는 그 다리를 어디다 숨기려는지 몸부림쳤다.**(군관으로부터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어머니의 다리는 **요지부동(搖之不動)**(흔들어도 꿈쩍하지 아니함)이었다.

“군관 나오리, 우리 집엔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찾아보실 것도 없다니까요. 군관 나오리.”

그러나 [ **절체절명(絶體絶命)**(몸도 목숨도 다 되었다는 뜻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의 위기 ]([ ]: 군관에게 아들이 발각될 위기)가 어머니에게 **육박(肉薄)**(바싹 가까이 다가붙음)해 오고 있음을 난들 어찌랴. [ 공포와 아직도 한 가닥 기대를 건 비굴이 어머니의 얼굴을 뒤죽박죽으로 일그러뜨리고 이마에선 구슬 같은 땀이 송글송글 솟아오르고 다리를 감싼 손과 앙상한 어깨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 ]: 어머니의 외양 묘사를 통해 심리를 간접 제시함, ‘나’의 심리를 직접 제시한 것과 차이가 있음, **구절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에서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절박한 심리를 드러낸다.’의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 가연은 어머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차라리 죽게 하시지, 그 **몹쓸 일**(자신의 아들이 눈앞에서 죽는 것을 목격하는 일)을 두 번 겪게 하시다니……. ]([ ]: 과거에 아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게 되었고, 현재 그 일을 다시 환각으로 겪게 됨)

“어머니, 어머니, 이러시지 말고 제발 정신 차리세요.”

나는 어머니의 어깨를 흔들면서 울부짖었다. [ 어머니는 어디서 그런 힘이 솟는지 나를 **검부러기**(검불의 부스러기)처럼 가볍게 털어 내면서 격렬하게 몸부림쳤다. ]([ ]: 아들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음 → 자식에 대한 사랑)

[ “안 된다. 안 돼. **이노움.**(군관을 비속하게 부름,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군관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담겨 있음) 안 돼. 너도 사람이냐? 이노움, 이노움.” ]([ ]: 군관이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장면을 보고 있음)

나는 벽까지 떠다 밀린 채 와들와들 떨면서 점점 심해 가는 어머니의 **광란(狂亂)**(미친 듯이 어지럽게 날뛸)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의 몸에서 수술한 다리만 빼고는 온몸이 노한 파도처럼 출렁였다. 그래서 더욱 그 다리는 어머니의 몸이 아닌 이물질처럼 괴기스러워 보였다. **어머니의 그 다리와 아들과의 동일시가 나한테까지 윙아 붙은 것처럼 나는 그 다리가 무서웠다.**(‘나’도 이제 어머니의 다리가 죽은 오빠로 느껴질 만큼 무서워짐, 오빠의 비극적 죽음을 떠올림, **구절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에서 ‘어머니의 아픔에 동화되지 못한 ‘나’의 극한의 공포심이 드러난다.’의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이 죽던 상황에 대한 환각으로 몸부림침

“안 된다, 이노움.”이라는 호통과 **“군관 나오리, 군관 선생님, 군관 동무”**(군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존대하는 호칭을 사용함)라는 아부를 번갈아 하며 몸부림치는 **서슬**(강하고 날카로운 기세)에 **마침내 링거 줄이 주삿바늘에서 빠져 버렸다.**(어머니의 격한 행동 때문에) [ 혈관에 꽂힌 채인 주삿바늘을 통해 피가 **역류**(물이 거슬러 흐름. 또는 그렇게 흐르는 물)해 환자복과 시트를 점점 물들였다. ]([ ]: 나의 관찰 → 어머니의 광란이 극으로 치닫고 있음, 어머니의 극한 상황에 대해 전달함, **서슬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서 ‘색채 이미지를 통해 극한 상황을 선명하게 묘사한다.’의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피를 보자 어머니의 광란은 극에 달했다.

**“이노움, 게 섰거라. 이노움, 나도 죽이고 가거라. 이노움.”**(환각에서 아들의 죽음을 본 어머니의 분노, **내용 이해를 묻는 문제에서 ‘㉠(군관 나오리)는 아들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비굴함, ㉡(이노움)는 아들에 대한 분**

노, 적개심을 드러낸 표현이다.’의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 어머니는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이를 갈았다. 틀니를 빼 놓아 잇몸만으로 이를 가는 시늉을 하는 게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나 말고 누가 또 본 사람이 있을까. (‘나’에게 목격된 어머니의 처절한 모습을 통해 전쟁의 비극이 생생히 되살아 남) 이게 꿈이었으면, 꿈이었으면. 어머니는 이 세상 소리가 아닌 **기성(奇聲)**(기이한 소리)을 지르며 머리카락을 부득부득 쥐어뜯다가 오줌을 받아 내는 호스도 다 뜯어 버렸다. ]([ ]: 어머니는 환각을 통해 눈 앞에서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마주하고, 슬픔과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됨, 수십 년 전 일이 어머니에게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 있음, 어머니의 정신적 고통을 보여 주는 부분, **작년과 마찬가지로 한국 전쟁과 분단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어머니의 상처와 작품의 제목이 지닌 의미를 연결 지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피비린내가 내 정신을 혼미케 했다. 퍼뜩 정신이 나서 구원을 청하려 나가려는데 어머니의 기성이 바깥까지 들렸던지 간호원이 뛰어왔다. **뒤미처**(그 뒤에 곧 잇따라) 나이 지긋한 **수간호원**(종합 병원 따위에서, 병동 등 특정 단위에 속하는 간호사들의 우두머리)도 달려왔다. **어머니의 몸에 부착했던 의료 기구들을 원상 복구하기 위해선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했다.**(환각 상태에서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몸부림을 제압하기가 쉽지 않음) 어머니는 힘이 장사였다. 내가 수간호원과 다른 간호원과 함께 어머니를 힘껏 짊어 누르는 동안 담당 간호원이 어머니가 뽑아낸 것들을 다시 삽입했다. 링거는 숯제 발등으로 옮겨 꼰았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까?”

나는 수간호원에게 원망스럽게 말했다.

**“너무 심려 마세요. 혼하진 않지만 이런 특이 체질이 아주 드문 것도 아니니까요. 곧 나아지실 겁니다.”**

(어머니의 내면의 상처를 모르는 수간호원은 어머니가 보이는 증세가 특이 체질에 의한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김, ‘나’와 달리 다른 사람들은 어머니의 내면에 남은 상처를 모르고 있음)

수간호원이 이렇게 나를 위로했다. [ 어머니의 **악몽**(환각으로 되살아난 전쟁 당시의 처절한 기억)이 특이 체질 탓이라고? 하긴 타인의 꿈에 대해 누가 감히 안다고 할 수 있으랴? ]([ ]: ‘나’는 어머니의 아픔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함)

이제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발악**(온갖 짓을 다 하며 마구 악을 씌)으로 변한 어머니의 몸부림은 지칠 줄 몰랐다. [ 수간호원이 간호원에게 지시해서 침대 양쪽 난간을 올리고 끈을 가져다가 어머니의 **사지**(사람의 두 팔과 두 다리를 통틀어 이르는 말)를 꼼꼼 묶게 했다. ]([ ]: 어머니의 광란을 막기 위한 방법, **내용 일치를 묻는 문제에서 ‘어머니의 광란에 간호원들은 어머니의 사지를 묶은 뒤 ‘나’를 위로하고 병실을 나갔다.’의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따남 된 마음에 좀 안됐다 싶으셔도 참으세요. 이런 경우는 **이 수**(사지를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요. 이제 안심하고 눈 좀 붙이세요. **지레**(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 또는 어떤 기회나 때가 무르익기 전에 미리) 병나시겠어요. 곧 정상으로 돌아오실 테니 염려 마시고…….”

▶ 환각으로 몸부림치던 어머니는 결국 침대에 묶이게 됨

그들은 어머니를 묶어 놓고 나를 위로하고 병실을 나갔다. 나는 지칠 대로 지쳐서 신 신은 채 보조 침대에 상반신을 껴었다. **그러나 웬걸, 원한 맺힌 맹수처럼 으르렁대던 어머니가 에잇 하고 한번 기합을 넣자 사지를 묶은 끈은 우지직 끊어지기도 하고 혹은 풀리기도 했다.**(어머니는 불가사의한 괴력을 발휘하며 환각 속에서 아들을 앓아 간 전쟁과 맞서고 있음) 어머니는 다시 길길이 뛰기 시작했다. 참으로 **불가사의한**(사람의 생각으로는 미루어 헤아릴 수 없이 이상하고 야릇한) 괴력이었다. 목소리도 뜻이 통하는 말이 아니라 원한의 울부짖음과 독한 악담이 섞인 소름 끼치는 기성이었다. **조금도 과장 없이 간장을 도려내는 아픔과 함께 내 속에서도 불가사의한 괴력이 솟았다.**(‘나’의 심리 변화 - 두려움에서 벗어나 어머니의 아픔에 동화됨, ‘나’ 역시도 전쟁 중 혈육인 오빠를 잃었음) 나는 이를 악물고 어머니에게로 돌진했다. 다시는 **아무의 도움도 청하지 않고**(다른 사람들은 어머니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머니와 맞서리라 마음먹었다. **이건 아무의 도움도 간섭도 필요 없는 우리 모녀만의 것이다.**(혈육을 잃은 아픔을 공유한 모녀만이 간직한 한, 작가의 체험이 반영된 부분 - 작가인 박완서도 한국 전쟁 때 혈육을 잃음 → 작품의 사실성을 확보하고 추상적으로 흐르기 쉬운 분단 문제를 구체적이고 생생한 아픔으로 형상화함, **맥락을 바탕으로 한 감상으로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에서 ‘작가 맥락: 실제로 박완서 작가가 전쟁의 체험을 겪었다고**



하는데, 이 작품은 작가의 자전적 체험이 녹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구나.’의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작년과 달리 작품 내외의 다양한 맥락을 바탕으로 한 감상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 나는 어머니를 힘껏 찍어 눌렀다.(어머니를 진정시키기 위한 행위임) 온몸으로 타고 앉다시피 했다. 어머니의 **경련처럼 괴로운 출렁임이 고스란히 전해 왔다.**(어머니의 고통을 온몸으로 생생하게 느낌)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이거나 약해져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되면 어머니가 나를 타고 앉게 될지도 모른다. 내가 아무리 **전심전력**(온 마음과 온 힘)으로 대결해도 어머니의 힘과는 **막상막하**(더 낮고 더 못함의 차이가 거의 없음)여서 **내 힘이 위태로워질 때마다**(어머니에게 ‘나’의 힘이 밀릴 때마다) 나는 어머니의 뺨을 쳤다. ]([ ]: 아들의 죽음에 대한 환각으로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어머니와 어머니의 뺨을 쳐서라도 맞서려고 하는 ‘나’의 극한적 상황)

“엄마, 정신 차려요. 엄마, 정신 차려요.”

처음으로 엄마의 뺨을 치고 나는 [ 내 손이 저지른 **패륜(悖倫)**(인간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그러짐. 또는 그런 현상) ]([ ]: 어머니의 뺨을 친 행위에 **경악**(소스라치게 깜짝 놀람)해서 두 번째는 더욱 세차게 때렸고, 어머니의 뺨에 솟아오른 내 손자국을 보고 **이것은 악몽 속 아니면 지옥일 거라는 일종의 비현실감이 패륜에 패륜을 서슴없이 보태게 했다.**(현실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극한적 상황임, **내용 이해를 묻는 문제에서 ‘어머니의 광란이 극에 달한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어머니를 진정시키기 위한 행동이다.’의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힘도 무서웠지만 더 무서운 건 **어머니의 얼굴**(전쟁의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난 모습 - 내면의 깊은 상처가 얼굴에 드러남)이었다. 그건 내 어머니의 얼굴이 아니었다. **이제 나는 어머니와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나름의 공포와 싸우고 있었다.**(‘나’의 내면에 잠재된 과거에 대한 슬픔과 공포와 맞섬)

▶ ‘나’는 다시 몸부림치는 어머니에 직접 맞서서 대응함

▶ 위기 - 큰 수술을 마친 어머니는 전쟁 중 아들이 죽음을 맞이할 당시로 의식이 돌아가 환각 증세를 보임 [ [중략 부분의 줄거리] 한국 전쟁 당시 ‘나’의 오빠는 **인민군**(북한의 군대) 치하에서 어쩔 수 없이 북한 **의용군**(국가나 사회의 위급을 구하기 위하여 민간으로 조직된 군대. 또는 그런 군대의 군인)에 지원했다가 심신이 **피폐해진**(지치고 쇠약해진) 채로 겨우 도망친다. ‘나’의 가족은 오빠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산동네**(현재동 산 꼭대기)로 가서 숨어 지낸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오빠는 인민군 군관에게 발각되어 총상을 입고 죽게 된다.**(어머니가 본 환각, 어머니와 ‘나’의 한) ]([ ]: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 전쟁 당시를 회상하는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음, **작품의 구조를 묻는 문제에서 ‘역순행적 구성을 사용하여 과거의 이야기를 먼저 서술한 후 현재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의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 절정 - 한국 전쟁 당시 ‘나’의 오빠는 인민군 치하에서 의용군에 지원했다가 탈출한 뒤, 군관에게 들켜 총에 맞아 숨질 마취가 깨어날 때 부린 **난동**(질서를 어지럽히며 마구 행동함. 또는 그런 행동)으로 어머니는 어쩌나 많은 힘을 소모하였는지 [ 그 후 오랫동안 **탈진**(기운이 다 빠져 없어짐) 상태가 계속됐다. **부피도 무게도 호흡도 없이**(생명이 붙어 있다는 기미도 없이) 불면 날아갈 듯 한 장의 백지장이 되어 누워 있었다. ]([ ]: 어머니의 변화) 간혹 문병을 와 주는 친척이나 친구 보기에 도저히 회복될 가망이 없어 보였던지 모두 심각하게 고개를 저었다. [ 그들 중에는 어머니가 아예 의식이 없는 줄 알고 서슴지 않고 장례 절차 얘기를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상갓집에 온 줄 착각을 하는지 천수(天壽)를 누리셨으니 너무 서러워 말라고 우리를 위로하는 이도 있었다. **우리 역시 그런 그들을 말리거나 언짢게 생각하지 않았다.**(그들의 말이 별반 잘못되었다고 여기지 않음,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가족들의 태도 -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임) ]([ ]: 문병객들과 가족들은 어머니의 죽음을 이미 정해진 일로 받아들임) 한두 손갈 **유동식(流動食)**(소화되기 쉽도록 묽게 만든 음식)을 받아 넘긴다든가 주삿바늘을 찌를 때 찡그리는 것 외엔 어머니에게 의식이 남아 있다는 표시는 참으로 **미미했다.**(보잘것없이 아주 작았다.)

▶ 어머니의 생기가 미약해짐

어느 날, 문병을 와 준 내 친구도 이런 어머니를 **일별(一瞥)**(한 번 흘끗 봄)하더니 대뜸 이렇게 말했다.

[ “**수의**(염습할 때에 송장에 입히는 옷)는 장만해 났니?”

“**아니, 뭐 그런 끔찍한 걸 미리 장만을 하니?**”(수의에 대한 ‘나’의 부정적 태도가 드러남)

“애 좀 봐, 그럼 묘지는?”

“묘지? 그런 것도 미리 장만하는 거니?”

“**애 좀 봐, 그것도 안 해 놔구나. 넌 하여튼 알아줘야 해.**”(어머니의 사후를 대비하여 수의나 묘지 등을 준비하지 않은 ‘나’의 행동에 어처구니없어함) ]([ ]: 친구와 ‘나’의 견해 차이가 드러남)

“뭘?”

“너 **나이롱**(‘가짜’의 비유적인 표현) 딸인 거, 말야.”

“나이롱 딸?”

“그래 나이롱 딸, 이런 엉터리. **아들도 없는데 딸까지 이런 순 엉터리니…….**(어머니의 사후 대비를 소홀히 한 것을 지적함)”

나는 내가 나일론에다 순 엉터리인 건 상관없었지만 **어머니를 위해선 좀 안 된 것 같아**(어머니가 묻힐 곳도 없는 불우한 처지로 인식되는 것이 섭섭하여) 변명할 마음이 생겼다.

“우린 고향에 **선영(先塋)**(조상의 무덤. 또는 그 근처의 땅)이 있지 않니?”

“느이 고향이 어딘데?”

“몰라서 묻니? **개성 쪽, 개풍군**(‘나’의 고향, 작가의 체험이 반영된 부분 - 작가인 박완서의 실제 고향이기도 함)이야.”

“**거기 있는 선영이 무슨 소용이 있어?**”(분단이 고착화된 현실에 따른 인식, **내용 이해를 묻는 문제에서 ‘내 친구는 분단이 고착화되어 통일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의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래도.”

[ “그래도라니? 변명치곤 너무 **구차스럽다**(말이나 행동이 떳떳하지 못하거나 버젓하지 못한 데가 있다.) 애. **이복**(복한)에 두고 온 논밭 **저당(抵當)**(부동산이나 동산을 채무의 담보로 잡거나 담보로 잡힘) 잡고 돈도 꺾 달랠라.” ]([ ]: ‘나’의 말이 전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함)

입이 험한 친구는 사정없이 나를 몰아세웠다.

“그게 아니라 일종의 **묵계(墨契)**(말 없는 가운데 뜻이 서로 맞음. 또는 그렇게 하여 성립된 약속) 같은 거지. 어머니는 비록 살아생전에 못 가셨더라도 돌아가신 후에만은 어머니가 선영 곁에 누우시길 바라실 거 아니니? **말씀은 안 하셔도 속으로 간절히 바라시는 걸**(분단된 상황이므로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해도 고향에 묻히고 싶어 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의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뻔히 알면서 어떻게 댄 데다 묘지를 사 놓니? 그야 막상 돌아가시면 문제가 달라지겠지? **그때 가서 묘지를 사도 늦을 거 없잖아.**(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굳이 고향에 묻히지 못함을 확인시켜 드릴 필요는 없다는 의식) 묘지란 어차피 **사후의 집**(묘지에 대한 ‘나’의 인식을 보여주는 표현)이니까.”

▶ 어머니의 묘지 마련에 대한 ‘나’와 친구의 견해 차이

이때 어머니가 눈을 떴다. 백지장 같은 모습과는 판판으로 또렷하고 생기 있는 눈이어서 친구는 앉은자리에서 **에구머니나 비명을 지르며 내 옷소매에 매달렸다.**(머지않아 임종할 것이라고 여긴 이에게서 돌연 생기를 발견하자 크게 놀람)

“**호숙 에미**(서술자인 ‘나’), 나 좀 보자.”

어머니가 **정정한**(늙은 몸이 굳세고 건강한) 목소리로 나를 곁으로 불렀다.

“네, 어머니.”

나는 어머니에게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어머니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 **알맞은 온기와 악력(握力)**(손아귀로 무엇을 쥐는 힘) ]([ ]: 살아 있는 이의 생기)이 나를 놀라게도 서럽게도 했다.

“**나 죽거든 행여 묘지 쓰지 말거라.**”(사후에 땅에 매장되는 것을 원치 않음 → 오빠와 같은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길 원함)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상시처럼 잔잔하고 만만치 않았다.**(어머니가 환각 증세를 보였던 앞부분과 달리 평상시의 모습으로 돌아왔음)

“네? **다 들으셨군요?**(어머니가 자신의 장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 - 친구와 함께 어머니의 장례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어머니도 들음)”

“그래, 마침 듣기 잘했다. 그렇잖아도 언제고 꼭 일러두려 했는데. 유언 삼아 일러두는 게니 잘 들어 뒀다 어김없이 시행토록 해라. **나 죽거든 내가 느이 오래비한테 해 준 것처럼 해 다오.**(사후에 시신을 화장하여 뺏가루를 고향 땅을 향해 날려 주기를 바람, **내용 이해를 묻는 문제에서 ‘어머니는 죽은 뒤 고향 땅에 묻히고 싶어 하지만 분단 때문에 그럴 수 없음을 한탄한다.’의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렇게 해 다오. 누가 뭐라든 상관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건 너밖에 없기에 부탁하는 거다.**(전쟁 때 혈육을 잃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딸만이 자신의 유언을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함)”

“오빠처럼요?”

“그래, 꼭 그대로, 그걸 설마 잊고 있진 않겠지?”

“**잇다니요.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나’ 역시 어머니처럼 혈육을 잃은 상처를 잊지 못하고 그대로 간직함)”

어머니의 손의 악력은 정정했을 때처럼 아니, **나를 끌고 농바위 고개를 넘을 때**(자식에게 신식 교육을 시키려는 의지로 고향을 떠나올 때)처럼 강한 **좃대**(자기의 처지나 생각을 꺾듯이 지키고 내세우는 기질이나 기풍)와 고집을 느끼게 했다.

▶ 정신이 돌아온 뒤 ‘나’에게 유언을 하는 어머니

[ 오빠의 시신은 처음엔 무악재 고개 너머 벌판의 **밭머리**(밭이랑의 양쪽 끝이 되는 곳)에 가매장(假埋葬)했다. ]([ ]: 제대로된 형식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채로 오빠의 장례를 치를 만큼 열악한 상황이었음) **행려병사자**(떠돌아다니다가 타향에서 병들어 죽은 사람) 취급하듯이 형식과 절차 없는 매장이었지만 **무정부 상태의 텅 빈 도시**(서울을 탈취당한 상태였음)에서 우리 모녀의 가냘픈 힘만으로 그것 이상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서울이 **수복(收復)**(잃었던 땅이나 권리 등을 되찾음)되고 화장장이 정상화되자마자 어머니는 오빠를 화장할 것을 의논해 왔다. 그때 우리와 합하게 된 **올케**(어머니와 갈등을 빚는 인물, **인물에 대해 묻는 문제에서 ‘올케: 어머니와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로서 오빠의 죽음의 원인이 어머니에게 있다고 믿고 있다.’의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작품의 등장인물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는 아비 없는 아들들에게 무덤이라도 남겨 줘야 한다고 공동묘지라도 **이장**(무덤을 옮겨 씌)할 것을 주장했다. **어머니는 오빠를 죽게 한 것이 자기 죄처럼, 젊어 과부 된 며느리한테 기가 죽어 지냈었는데**(눈앞에서 죽어 간 아들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어머니의 죄의식) 그때만은 조금도 양보할 기세가 아니었다. 남편의 임종도 못 보고 과부가 된 것도 억울한데 그 무덤까지 **말살**(있는 사물을 뭉개어 아주 없애 버림)하려는 시어머니의 모진 마음이 **야속하고**(무정한 행동이나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 섭섭하게 여겨져 언짢고) 정떨어졌으려면 그런 기세 속엔 거역할 수 없는 위엄과 비통한 의지가 담겨 있어 **종당**(일의 마지막)엔 올케도 **순종을 하고 말았다.**(어머니의 위엄과 비통한 의지를 거역할 수 없었음)

**오빠의 삶은 연기가 되고 뼈는 한 줌의 가루가 되었다.**(오빠의 시신을 화장함) 어머니는 앞장서서 강화로 가는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우리 **묵묵히**(말없이 잠잠하게) 뒤따랐다. 강화도에서 내린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서 [ 멀리 **개풍군 땅**(가족의 선영이 있는 곳)이 보이는 바닷가에 섰다. ]([ ]: 오빠의 뺏가루를 고향 쪽으로 날리기 위해서) 그리고 **지척(咫尺)**(아주 가까운 거리)으로 보이되 갈 수 없는 땅을 향해 그 **한 줌의 먼지**(오빠의 뺏가루)를 훑훑 날렸다. 개풍군 땅은 우리 가족의 선영이 있는 땅이었지만 선영에 못 묻히는 한을 그런 방법으로 풀고 있다곤 생각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모습엔 운명에 순종하고 한을 지그시 품고 식이는**(전쟁이 가져온 비참한 운명에 순응하는) 약하고 다소곳한 여자 티는 조금도 없었다. **방금 출전(出戰)하려는 용사처럼 씩씩하고 도전적이었다.**(오빠의 유골을 뿌리는 어머니의 모습, 남북의 분단과 그것이 가져온 개인의 비극을 극복하려는 어머니의 의지, **구절의 이해를 묻는 문제에서 ‘어머니는 분단과 그것이 가져온 개인의 비극에 정면으로 맞서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의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 어머니는 한 줌의 먼지와 바람으로써 **너무도 엄청난 것**(전쟁의 상처와 분단의 비극)과의 싸움을 시도하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그 한 줌의 먼지와 바람은 결코 미약한 게 아니었다.**(자신에게 상처를 준 분단과 싸우는 어머니 나름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머니를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간,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단이란 괴물**(이념 대립으로 동족끼리 피를 흘렸던 전쟁 중에 아들까지 잃게 됨)을 홀로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였다. ]([ ]: 자신을 둘러싼 세상과의 갈등에서 끝까지 저항하고자 하는 어머니의 의지적인 태도)



▶ 어머니가 오빠의 뺨가루를 북녘을 향해 날림

어머니는 나더러 그때 그 자리에서 또 **그 짓**(고향이 보이는 강화도의 바닷가에서 뺨가루를 바람에 날리는 것 → 분단이 가져온 비극과 정면으로 맞서는 것, **특정 표현에 드러난 서술자의 심리를 묻는 문제에서 '가족의 비극에 대한 고통을 환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드러낸다.'**의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을 하란다. **이젠 자기가 몸소 그 먼지와 바람이 될 테니 나더러 그 짓을 하란다.**(분단이 가져온 비극과 정면으로 맞서려는 의지의 표현) **그 후 30년이란 세월이 흘렀건만 그 괴물을 무화(無化)시키는 길은 정녕 그 짓밖에 없는가?**(세월이 흘러도 혈육을 잃은 한은 해소되지 않고, 분단 상태 또한 지속되고 있음)

“너한테 미안하구나, 그렇지만 부탁한다.”

어머니도 그 짓밖에 물려줄 수 없는 게 진정으로 미안한 양 표정이 애달프게 이지러졌다.

**아아, 나는 그 짓을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어머니의 유언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 → ‘나’가 어머니의 비극이 시대적 아픔임을 절감하고 어머니를 이해하게 됨)

어머니는 아직도 **투병 중**(① 어머니가 다리 부상 후 큰 수술을 받고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상황임을 뜻함, ② 분단이 극복되지 않는 한 어머니의 정신적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함, **특정 표현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묻는 문제에서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고통이 쉽게 낫지 않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의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작품의 마지막 문장의 의미에 대해 서술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이시다.

▶ ‘나’에게 미안해하며 유언을 실행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는 어머니

▶ 결말 - 어머니는 ‘나’에게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뺨가루를 북쪽의 고향 땅이 보이는 곳에 뿌려 달라고 말함  
- 「엄마의 말뚝 2」

**연계 작품**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너그럽고  
빛나는  
봄의 그 눈짓은,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눈밭에서 움튼다.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그 매운 눈보라 몰고 왔지만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은, 삼천리 마을마다  
우리들 가슴속에서  
움트리라.

옴터서,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쇠붙이들  
눈 녹이듯 흐물흐물  
녹여 버리겠지.

- 「봄은」

★ 「엄마의 말뚝」과 비교하여 출제된 내용

- 「엄마의 말뚝」의 '어머니'가 소망하는 분단 상황의 극복이 「봄은」에서 '봄'이라는 시어로 제시되었음

물로 사흘 배 사흘  
먼 삼천 리  
더더구나 걸어 넘는 먼 삼천 리  
삭주 구성(朔州龜城)은 산(山)을 넘은 육천 리요

물 맞아 함박이 젖은 제비도  
가다가 비에 걸려 오노랍니다.  
저녁에는 높은 산  
밤에는 높은 산

삭주 구성은 산 넘어  
먼 육천 리  
가끔가끔 꿈에는 사오천 리  
가다오다 돌아오는 길이겠지요

서로 떠난 몸이길래 몸이 그리워  
넘을 둔 곳이길래 곳이 그리워  
못 보았소 새들도 집이 그리워  
남북으로 오며가며 아니합디까

들 끝에 날아가는 나는 구름은  
반쯤은 어디 바로 가 있을 텐고  
삭주 구성은 산 넘어  
먼 육천 리

- 「삭주구성」

★ 「엄마의 말뚝」과 비교하여 출제된 내용

- 「삭주구성」의 '젖은 제비'는 그리운 '삭주 구성'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엄마의 말뚝」의 '어머니'와 비슷한 처지임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火山)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姿勢)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저어 서로 응시하는 쌀쌀한 풍경. 아름다운 풍토는 이미 고구려(高句麗) 같은 정신도 신라(新羅) 같은 이야기도 없는가.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 …… 우리 무엇에 불안한 얼굴의 의미(意味)는 여기에 있었던가.

모든 유혈(流血)은 꿈같이 가고 지금도 나무 하나 안심하고 서 있지 못할 광장(廣場). 아직도 정맥은 끊어진 채 휴식(休息)인가, 아워어가는 이야기뿐인가.

언제 한 번은 불고야 말 독사의 혀 같은 징그러운 바람이여. 너도 이미 아는 모진 겨우살이를 또 한 번 겪어야 하는가. 아무런 죄(罪)도 없이 피어난 꽃은 시방의 자리에서 얼마를 더 살아야 하는가. 아름다운 길은 이뿐인가.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火山)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姿勢)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 「휴전선」

★ 「엄마의 말뚝」과 비교하여 출제된 내용

- ‘요런 자세’는 서로 상호 적대하는 태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엄마의 말뚝」의 ‘분단이란 괴물’과 의미가 상통함
-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엄마의 말뚝」의 어머니가 처한 현실과 달리 분단되지 않은 공간임
- ‘모든 유혈(流血)’은 「엄마의 말뚝」의 어머니에게 상처를 준 한국전쟁을 암시함
- ‘모진 겨우살이’는 「엄마의 말뚝」의 어머니가 겪은 고통을 의미함
- 「엄마의 말뚝」의 어머니가 바라는 것과 달리 ‘꽃’은 분단의 극복이 아닌, 일시적인 휴전 상태를 뜻함



지문 확인 - 엄마의 말뚝

[앞부분의 줄거리] 어느 날 외출에서 돌아온 '나' ( )는 **친정어머니**(86세의 )임)가 눈길에 넘어져 크게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간다. 다리 **골절**(뼈가 부러짐)로 수술해야 한다는 진단을 듣고 **노령**(늙은 나이)의 어머니가 큰 수술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난다. 가족들을 보내고 홀로 병실에 남은 '나'는 어머니의 마취가 풀리기를 기다리다가 잠시 잠이 든다.

▶ - 친구를 만나기 위해 외출한 '나'는 계속해서 한 예감이 들

▶ - 외출에서 돌아온 '나'는 가족들에게서 가 눈길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에 감

얼마나 잤는지 **몹시 슬렁이는 기미**(어머니가 상태에서 을 허공에 휘젓고 있음)에 퍼뜩 깨어났다. **병실은 소리 없이 슬렁이고 있었다.**( ) **어머니가 두 손으로 허공을 휘젓고 있었던 것이다.**( : 병실이 슬렁였던 이유) 그러나 무작정 휘젓는 헛손질하곤 달라 보였다. **열심히 무슨 일인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신중하고도 규칙적이었다.**( 를 분류하고 개는 행동을 함 → 어머니의 마음 속에 남아있던 의 기억이 되살아남, **내용 일치**를 묻는 문제에서 **'어머니는 허공에서 를 개키는 행동을 하고 있다.'**의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본문의 내용과 선지의 일치 여부를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나(서술자)는 **찬물을 뒤집어쓴 것처럼 잠이 달아나 버린 것을 느끼며**(인물의 심리를 법을 통해 드러냄) 화들짝 몸을 솟구쳐 우선 불 먼저 켜다. 어머니는 얼굴을 잠깐 찌푸렸지만 **두 손으로 하던 일**(두 손으로 을 휘젓는 것)만은 멈추지 않았다.

“엄마, 뭐 해?”

**나도 모르게 어릴 때의 말투로 물었다.**(수십 년 전으로 돌아간 의 모습 때문에,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서 '작품 밖의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와 행동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의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 “보면 모르냐? 빨래를 했으면 윗도리는 윗도리, 뺨쓰는 뺨쓰, 양말은 양말끼리 **개켜**(웃이나 이부자리 등을 겹치거나 접어서 단정하게 포개어) 놔야지 한데 쑤셔 박아 놓으면 쓰냐?” ]([ : 어머니의 의식이 를 키우던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가 있음, 의 적 행위)

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차고 또렷했다.

“빨래라뇨? 좀 주무시지 않고…….”

**“이걸 이 모양으로 늘어놓고 잠이 와? 못된 것들.”**(어머니의 상태: )

[ 어머니가 썩하는 썩소리를 내면서 나를 쳐다보았다. 눈의 푸른 기가 한층 깊어져서 **귀기(鬼氣)**(귀신이 나타날 것 같은 무시무시한 기운)가 감돌았다. ]([ : 어머니가 상태에 있음을 보여줌) **나는 불현듯 도망가 구원을 청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혼자 어머니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임을 함, 인물의 를 적으로 제시함) 어머니의 손놀림은 허공에서 분주하게 빨래를 분류하고 개키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기세가 등등했다. 하루 전부터의 금식, 관장, 마취, 대수술 끝에 느닷없이 그런 기운이 솟다니. **나는 놀랍다기보다는 다리가 후들덜 만큼 겁부터 났다.**(인물의 를 적으로 제시함) 이때 **간호원**(간호사의 전 용어)이 들어왔다.

▶ 수술 후 에서 깨어난 어머니가 상태를 보임

[ “어머니가 좀 이상하세요. **들입다**(세차게 마구) 헛손질을 하시고 헛것도 보이시는 모양이에요.”

**“마취 끝에 더러 그런 환자들도 있어요. 차차 나아지겠죠.”**(어머니의 상태를 게 여기지 않음, **내용 이해**를 묻는 문제에서 **'간호원은 어머니의 상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의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간호원은 심드렁하게 말하고 체온과 맥박을 확인하고 나가 버렸다. 나는 따라 나가서 어머니가 주무시게 해달라고 졸랐다.

**“아까도 그러서서**(마취에서 깨어난 어머니가 불면을 호소하자 '나'는 이를 간호원실에 알렸고, 인턴이 ( ) 한 알을 가져다주었음) **약**( )을 드렸잖아요?”

“그 약이 안 듣잖아요. **참, 그 약 잡숫고 더하신 것 같아요. 맞았어요. 그 약을 드시기 전엔 잠은 못 주무셔도 헛것을 보시진 않았어요.**(어머니가 약의 으로 헛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함) 어떡하면 좋죠?”

“그렇 리는 없지만, 혹 그 약의 부작용이라고 해도 별일은 없을 테니까 안심하세요. **입상**(환자를 진료하거나 의학을 연구하기 위하여 병상에 임하는 일) 시험 결과 가장 부작용이 없는 걸로 알려진 신경 안정제를 **투약**(약을 지어 주거나 씹혔을 뿐이니까요.)”

**“이것보다 더 큰 별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니까요.”**(어머니의 갑작스러운 \_\_\_\_\_ 를 심상치 않게 여김)

“차차 나아지실 거예요.”

**“그까짓 신경 안정제 말고 수면제를 주든지 주사를 놓아 주든지 하세요.”**(어머니의 모습에 \_\_\_\_\_ 이 난 ‘나’는 간호원에게 수면제나 주사를 요구함)

“그럴 순 없어요.”

“아니, 이 큰 병원에서, 별의별 수술을 다 하는 대종합 병원에서 그래 잠 못 자 고생하는 환자 잠도 못 재워 준대서야 말이 돼요?”

“환자를 위하는 일은 우리가 더 잘 알아서 하고 있으니 가족들은 협조를 해 주셔야지 **덮어놓고**(옳고 그름이나 형편 따위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떼를 쓰시면 어떡해요?” ]([ ]: 인물 사이의 \_\_\_\_\_ - 어머니의 \_\_\_\_\_ 에 대한 인식 차이로 ‘\_\_\_\_\_’와 ‘\_\_\_\_\_’ 사이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음)

**간호원이 획 돌아서면서 쏘아붙였다.**(‘\_\_\_\_\_’와 \_\_\_\_\_ 사이의 \_\_\_\_\_) 나는 **무안하고 노여워서**(자신의 요구가 매몰차게 거절당한 데 따른 \_\_\_\_\_, **구절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에서 ‘간호원에 대한 서술자의 심리가 간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의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작품의 서술자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다시는 네 따위에게 **애걸(哀乞)**(소원을 들어 달라고 애처롭게 빌)을 하나 보라, 중얼중얼 **뇌까리며**(불쾌하다고 생각되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 태도에 대하여 불쾌하다는 뜻을 담은 말을 거듭해서 자꾸 말하며) 돌아왔다.

▶ 어머니의 상태를 \_\_\_\_\_ 하는 ‘나’와 달리 \_\_\_\_\_ 은 어머니의 상태를 대수롭지 않게 여김

아직도 빨래를 덜 개켰는지 허공에서 규칙적인 손놀림을 계속하고 있던 어머니의 손이 별안간 나를 향해 두 손바닥을 보이며 **방어의 자세**(\_\_\_\_\_ 으로부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를 취했다. **푸른 귀기가 들던 두 눈이 극단적인 공포로 튀어나올 듯이 확대됐다.**(어머니의 눈앞에 무언가 \_\_\_\_\_ 스러운 장면이 \_\_\_\_\_ 으 펼쳐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과거 \_\_\_\_\_ 적 행위를 하던 상황에서 갑자기 \_\_\_\_\_ 의 대상을 만났을 때로 의식이 바뀌었음)

“왜 그래, 엄마!”

나는 덩달아 무서움에 떨며 어머니한테로 달려갔다. [ 어머니의 팔이 내 목을 감으며 용을 쓰는 바람에 나는 숨이 막혔다. **굉장한 힘**(\_\_\_\_\_ 을 지키려는 힘)이었다. ]([ ]: 환각 속에서 \_\_\_\_\_ 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씀) 숨이 막혀 허덕이는 나의 귓전에 어머니는 지옥의 목소리처럼 공포에 질린 소리로 속삭였다.

**“그놈(\_\_\_\_\_ 을 죽인 \_\_\_\_\_)이 또 왔다. 하느님 맙소사. 그놈이 또 왔어.”**

어머니는 아직도 한 손으로 방어의 **태세**(어떤 일이나 상황을 앞둔 태도나 자세)를 취한 채 문 쪽을 보고 있었다. 나는 혹시 내 뒤에 누가 따라 들어왔는가 해서 돌아다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순간 머리끝이 쭈뼛했다.**(어머니의 이상 행동으로 인해 \_\_\_\_\_ 에 휩싸임)

“엄마!”

무서움증이 큰 힘이 되어 나는 어머니의 팔에서 벗어났다. 어머니는 악귀처럼 무서운 형상을 하고 와들와들 떨면서 **문 쪽**(어머니가 \_\_\_\_\_ 속에서 \_\_\_\_\_ 를 떨게 하는 대상이 있는 쪽)을 보고 있었다. 문 쪽엔 아무도 없었지만 어머니는 혼신의 힘으로 **누군가(\_\_\_\_\_ 을 죽인 \_\_\_\_\_)와 대결을 하고 있었다. 순간 나는 저승의 사자가 어머니를 데리러 와 거기 버티고 서 있는 게 어머니에게만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어머니가 환각으로 본 것은 \_\_\_\_\_ 이지만, 아직 그 사실을 모르는 ‘나’는 \_\_\_\_\_ 일 것이라고 생각함) **피가 얼어붙는 것처럼 무서워서 감히 그쪽으로 발을 옮길 수도 없었다.**(죽음을 이끄는 존재에 대한 공포와 참혹한 고통에 시달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극심한 \_\_\_\_\_ 을 느낌) 그러니 누구한테 구원을 요청할 **가망**(될 만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희망)도 없었다. [ 여든여섯의 노인의 병실을 저승의 사자가 넘보는 건 당연했다. 오늘의 수술 환자 중에서뿐 아니라 이 거대한 종합 병원에 입원한 모든 환자 중에서도 어머니는 최고령일지도 모른다. ]([ ]: ‘나’가 어머니의 \_\_\_\_\_ 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이유) 그만큼 분별이 있는 **저승의 사자**(‘\_\_\_\_\_’가 생각하는 \_\_\_\_\_ 의 대상)라면 앙탈을 해 봤댔자일 것 같

았다. 나는 이미 저승의 사자에게 어머니를 내줄 각오를 하고 있었다.( \_\_\_\_\_인 어머니의 \_\_\_\_\_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 여든여섯이면 누가 감히 **천수**(천명, 타고난 수명)를 **못 누렸다 하라**.('나'는 어머니가 천수를 누렸다고 생각함) 다만 [ 몸에 큰 칼자국을 내고 거기서 나는 **선혈(鮮血)**(생생한 피)이 아직 마르기도 전 ]( [ ]: 큰 \_\_\_\_\_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에 끌고 가려는 게 껄뻘하지만 세상의 죽음치고 그 정도의 **여한**(풀지 못하고 남은 원한)도 자식에게 안 남기는 죽음이 어디 있으랴. [ **각오는 하고 있으니 제발 네 모습을 어머니에게 보이지만 말게 해 다오**.(어머니가 돌아가시더라도 극한의 \_\_\_\_\_를 느끼지 않기를 바람 - 어머니의 \_\_\_\_\_을 완전하게 이해한 것은 아니며, \_\_\_\_\_으로서 말하는 것임) 백 살을 살다 죽어도 죽기는 싫은 게 인간의 **상정(常情)**(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보통의 인정)이라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네 모습만은 드러내지 않는 게 저승의 사자 된 도리요, 유일한 자비가 아니더냐. **사라져라, 제발. 휘이 휘이**.( \_\_\_\_\_가 사라지기를 바람) ]( [ ]: '나'가 속으로 \_\_\_\_\_에게 비는 말,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서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여 인물의 내면적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의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참혹한**(비참하고 끔찍한) 공포를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어 이렇게 속으로 부르짖었다. **그놈**( \_\_\_\_\_, 사실은 \_\_\_\_\_임)이 내 눈에까지 보이는 일이 일어날까 봐 더더욱 겁이 났다. 그러나 **그는 사라지기는커녕 다가오고 있음이 분명했다**.( \_\_\_\_\_가 어머니를 데려가기 위해 가까이 오고 있다고 여기고 있음) 어머니의 부릅 뜬 눈동자의 초점 거리가 그걸 말해 주고 있었다. 맏소사, 나 혼자 어머니의 **임종**(부모가 돌아가실 때 그 곁에 지키고 있음)을 지키게 되다니.

▶ '나'는 어머니의 상태가 나빠져 곧 \_\_\_\_\_ 것이라고 생각함

[ "그놈( \_\_\_\_\_) 또 왔다. 뭘 하고 있냐? **느이 오래빌**(한국 전쟁 중 죽은 '나'의 \_\_\_\_\_, **작년과 달리 어머니가 가리키는 대상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숨겨야지, 어서."

"엄마, 제발 이러시지 좀 마세요. 오빠가 어디 있다고 숨겨요?"

"그럼 느이 오래빌 벌써 잡아갔냐." ]( [ ]: 과거 전쟁 당시 \_\_\_\_\_이 집에 찾아왔던 때의 의식으로, 어떻게든 \_\_\_\_\_을 숨기려 함)

"엄마, 제발."

**어머니의 손이 사방을 더듬었다**.( \_\_\_\_\_을 찾기 위한 행동) 그러다가 붓대 감긴 자기의 다리에 손이 닿자 날카롭게 속삭였다.

**"가연은 내 새끼 여기 있었구나. 꼼짝 말아. 다 내가 당할 테니."**(어머니가 환각 속에서 자신의 \_\_\_\_\_를 \_\_\_\_\_로 여기고 있음, **내용 이해를 묻는 문제에서 '어머니는 수술한 \_\_\_\_\_를 죽은 \_\_\_\_\_과 동일시하고 있다.'**의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다리를 감싸는 **시늉**(어떤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내어 꾸미는 짓)을 했다. 그때부터 어머니의 다리는 어머니의 아들이었다. 어머니는 온몸으로 그 다리를 **업호(俺護)**(덮거나 가려서 보호해줌)하면서 **어머니의 적**( \_\_\_\_\_을 죽인 \_\_\_\_\_)을 노려보았다. **어머니의 적은 저승의 사자가 아니었다**.('나'가 \_\_\_\_\_을 알아차림)

**"군관 동무, 군관 선생님, 우리 집엔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_\_\_\_\_이 \_\_\_\_\_을 찾으려 하자 어머니가 \_\_\_\_\_을 높여 부르며 비굴하게나마 \_\_\_\_\_을 지키려고 함)

**어머니의 눈의 푸른 기가 애처롭게 흔들리면서 입가에 비굴한 웃음이 감돌았다**.( \_\_\_\_\_을 지키기 위해 \_\_\_\_\_에게 비굴하게 행동함) [ 나는 어머니가 환각으로 보고 있는 게 **무엇**( \_\_\_\_\_을 죽인 \_\_\_\_\_)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가연은 어머니, 차라리 저승의 사자를 보시는 게 나았을 것을**…….(어머니에 대한 '나'의 \_\_\_\_\_, '나'는 어머니의 마음 속에 \_\_\_\_\_이 되어 남아있는 기억에 대해 알고 있음) ]( [ ]: 어머니에게는 자신의 목숨을 거두러 오는 \_\_\_\_\_보다 \_\_\_\_\_의 목숨을 빼앗으러 오는 \_\_\_\_\_이 훨씬 더 \_\_\_\_\_스러운 존재임)

**어머니는 그 다리를 어디다 숨기려는지 몸부림쳤다**.( \_\_\_\_\_으로부터 \_\_\_\_\_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어머니의 다리는 **요지부동(搖之不動)**(흔들어도 껄뻘하지 아니함)이었다.

"군관 나오리, 우리 집엔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찾아보실 것도 없다니까요. 군관 나오리."

그러나 [ **절체절명(絶體絶命)**(몸도 목숨도 다 되었다는 뜻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의 위기 ]([ ]: \_\_\_\_\_에게 \_\_\_\_\_이 발각될 위기)가 어머니에게 **육박(肉薄)**(바싹 가까이 다가붙음)해 오고 있음을 난들 어찌랴. [ 공포와 아직도 한 가닥 기대를 건 비굴이 어머니의 얼굴을 뒤죽박죽으로 일그러뜨리고 이마에선 구슬 같은 땀이 송글송글 솟아오르고 다리를 감싼 손과 앙상한 어깨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 ]: \_\_\_\_\_의 \_\_\_\_\_를 통해 심리를 \_\_\_\_\_ 제시함, '\_\_\_\_'의 심리를 \_\_\_\_\_ 제시한 것과 차이가 있음, **구절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에서 '인물의 \_\_\_\_\_를 통해 절박한 \_\_\_\_\_를 드러낸다.'**의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 가엾은 어머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차라리 죽게 하시지, 그 **몹쓸 일**(자신의 \_\_\_\_\_이 눈앞에서 죽는 것을 목격하는 일)을 두 번 겪게 하시다니……. ]([ ]: 과거에 \_\_\_\_\_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게 되었고, 현재 그 일을 다시 \_\_\_\_\_으로 겪게 됨)

“어머니, 어머니, 이러시지 말고 제발 정신 차리세요.”

나는 어머니의 어깨를 흔들면서 울부짖었다. [ 어머니는 어디서 그런 힘이 솟는지 나를 **검부러기**(검불의 부스러기)처럼 가볍게 털어 내면서 격렬하게 몸부림쳤다. ]([ ]: \_\_\_\_\_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음 → 자식에 대한 \_\_\_\_\_)

[ “안 된다. 안 돼. **이노움**.(\_\_\_\_\_을 비속하게 부름, \_\_\_\_\_을 죽음으로 몰고 간 \_\_\_\_\_에 대한 \_\_\_\_\_와 \_\_\_\_\_이 담겨 있음) 안 돼. 너도 사람이냐? 이노움, 이노움.” ]([ ]: \_\_\_\_\_이 \_\_\_\_\_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장면을 보고 있음)

나는 벽까지 떠다 밀린 채 와들와들 떨면서 점점 심해 가는 어머니의 **광란(狂亂)**(미친 듯이 어지럽게 날뛸)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의 몸에서 수술한 다리만 빼고는 온몸이 노한 파도처럼 출렁였다. 그래서 더욱 그 다리는 어머니의 몸이 아닌 이물질처럼 괴기스러워 보였다. **어머니의 그 다리와 아들과의 동일시가 나한테까지 옮겨 붙은 것처럼 나는 그 다리가 무서웠다.**(‘\_\_\_\_’도 이제 어머니의 \_\_\_\_\_가 죽은 \_\_\_\_\_로 느껴질 만큼 무서워짐, \_\_\_\_\_의 비극적 \_\_\_\_\_을 떠올림, **구절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에서 '어머니의 아픔에 동화되지 못한 '나'의 극한의 공포심이 드러난다.'**의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 어머니가 자신의 \_\_\_\_\_이 죽던 상황에 대한 환각으로 몸부림침

“안 된다, 이노움.”이라는 호통과 **“군관 나오리, 군관 선생님, 군관 동무”**(\_\_\_\_\_의 환심을 사기 위해 존대하는 호칭을 사용함)라는 아부를 번갈아 하며 몸부림치는 **서술(강하고 날카로운 기세)에 마침내 링거 줄이 주삿바늘에서 빠져 버렸다.**(\_\_\_\_\_의 격한 행동 때문에) [ 혈관에 꽂힌 채인 주삿바늘을 통해 피가 **역류**(물이 거슬러 흐름. 또는 그렇게 흐르는 물)해 환자복과 시트를 점점 물들였다. ]([ ]: 나의 \_\_\_\_\_ → 어머니의 광란이 극으로 치달고 있음, 어머니의 \_\_\_\_\_에 대해 전달함,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서 '색채 이미지를 통해 \_\_\_\_\_을 선명하게 묘사한다.'**의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피를 보자 어머니의 광란은 극에 달했다.

**“이노움, 게 섰거라. 이노움, 나도 죽이고 가거라. 이노움.”**(환각에서 \_\_\_\_\_의 \_\_\_\_\_을 본 어머니의 분노, **내용 이해를 묻는 문제에서 '㉠(군관 나오리)는 아들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비굴함, ㉡(이노움)는 아들에 대한 분노, 적개심을 드러낸 표현이다.'**의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 어머니는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이를 갈았다. 틀니를 빼 놓아 잇몸만으로 이를 가는 시늉을 하는 게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나 말고 누가 또 본 사람이 있을까.(‘나’에게 \_\_\_\_\_된 어머니의 \_\_\_\_\_한 모습을 통해 전쟁의 \_\_\_\_\_이 생생히 되살아 남) 이게 꿈이었으면, 꿈이었으면. 어머니는 이 세상 소리가 아닌 **기성(奇聲)**(기이한 소리)을 지르며 머리카락을 부득부득 쥐어뜯다가 오줌을 받아 내는 호스도 다 뜯어 버렸다. ]([ ]: 어머니는 환각을 통해 눈앞에서 \_\_\_\_\_이 죽음을 당하는 장면을 마주하고, \_\_\_\_\_과 \_\_\_\_\_가 극에 달하게 됨, 수십 년 전 일이 어머니에게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_\_\_\_\_로 남아 있음, 어머니의 정신적 \_\_\_\_\_을 보여 주는 부분, **작년과 마찬가지로 한국 전쟁과 분단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어머니의 상처와 작품의 제목이 지닌 의미를 연결 지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피비린내가 내 정신을 혼미케 했다. 퍼뜩 정신이 나서 구원을 청하려 나가려는데 어머니의 기성이 바깥까지 들렸던지 간호원이 뛰어왔다. **뒤미처**(그 뒤에 곧 잇따라) 나이 지긋한 **수간호원**(종합 병원 따위에서, 병동 등 특정 단위에 속하는 간호사들의 우두머리)도 달려왔다. **어머니의 몸에 부착했던 의료 기구들을 원상 복구하기 위해선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했다.**(환각 상태에서 \_\_\_\_\_을 잃은 어머니의 몸부림을 제압하기가 쉽지 않음) 어머니는 힘이 장사였다. 내가 수간호원과 다른 간호원과 함께 어머니를 힘껏 짊어 누르는 동안 담당 간호원이 어머니가 뽑아낸 것들을 다시 삽입했다. 링거는 솟제 발등으로 옮겨 꽂았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까?”

나는 수간호원에게 원망스럽게 말했다.

**“너무 심려 마세요. 흔하진 않지만 이런 특이 체질이 아주 드문 것도 아니니까요. 곧 나아지실 겁니다.”**

(어머니의 내면의 \_\_\_\_\_를 모르는 수간호원은 어머니가 보이는 증세가 특이 체질에 의한 것이라며 \_\_\_\_\_게 여김, ‘나’와 달리 다른 사람들은 어머니의 내면에 남은 \_\_\_\_\_를 모르고 있음)

수간호원이 이렇게 나를 위로했다. **[ 어머니의 악몽(환각으로 되살아난 \_\_\_\_\_ 당시의 처절한 \_\_\_\_\_)이 특이 체질 탓이라고? 하긴 타인의 꿈에 대해 누가 감히 안다고 할 수 있으랴? ]**([ ]: ‘나’는 어머니의 \_\_\_\_\_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함)

이제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발악(온갖 짓을 다 하며 마구 악을 씌)**으로 변한 어머니의 몸부림은 지칠 줄 몰랐다. **[ 수간호원이 간호원에게 지시해서 침대 양쪽 난간을 올리고 끈을 가져다가 어머니의 사지(사람의 두 팔과 두 다리를 통틀어 이르는 말)를 푹푹 묶게 했다. ]**([ ]: 어머니의 \_\_\_\_\_을 막기 위한 방법, **내용 일치**를 묻는 문제에서 **‘어머니의 \_\_\_\_\_에 간호원들은 어머니의 사지를 묶은 뒤 ‘나’를 위로하고 병실을 나갔다.’의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따님 된 마음에 좀 안됐다 싶으셔도 참으세요. 이런 경우는 **이 수(\_\_\_\_\_를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요. 이제 안심하고 눈 좀 붙이세요. **지레(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 또는 어떤 기회나 때가 무르익기 전에 미리)** 병나시겠어요. 곧 정상으로 돌아오실 테니 염려 마시고…….”

▶ \_\_\_\_\_으로 몸부림치던 \_\_\_\_\_는 결국 침대에 묶이게 됨

그들은 어머니를 묶어 놓고 나를 위로하고 병실을 나갔다. 나는 지칠 대로 지쳐서 신 신은 채 보조 침대에 상반신을 껴었다. **그러나 웬걸, 원한 맺힌 맹수처럼 으르렁대던 어머니가 예잇 하고 한번 기합을 넣자 사지를 묶은 끈은 우지직 끊어지기도 하고 혹은 풀리기도 했다.**(어머니는 불가사의한 \_\_\_\_\_을 발휘하며 환각 속에서 \_\_\_\_\_을 앗아 간 \_\_\_\_\_과 맞서고 있음) 어머니는 다시 길길이 뛰기 시작했다. 참으로 **불가사의한(사람의 생각으로는 미루어 헤아릴 수 없이 이상하고 야릇한)** 괴력이었다. 목소리도 뜻이 통하는 말이 아니라 원한의 울부짖음과 독한 악담이 섞인 소름 끼치는 기성이었다. **조금도 과장 없이 간장을 도려내는 아픔과 함께 내 속에서도 불가사의한 괴력이 솟았다.**(‘나’의 심리 변화 - \_\_\_\_\_에서 벗어나 어머니의 \_\_\_\_\_에 \_\_\_\_\_됨, ‘나’ 역시도 전쟁 중 혈육인 오빠를 잃었음) 나는 이를 악물고 어머니에게로 돌진했다. 다시는 **아무의 도움도 청하지 않고**(다른 사람들은 어머니의 \_\_\_\_\_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머니와 맞서리라 마음먹었다. **이건 아무의 도움도 간섭도 필요 없는 우리 모녀만의 것이다.**(\_\_\_\_\_을 잃은 \_\_\_\_\_을 \_\_\_\_\_한 모녀만이 간직한 한, 작가의 체험이 반영된 부분 - \_\_\_\_\_인 박완서도 한국 전쟁 때 혈육을 잃음 → 작품의 \_\_\_\_\_을 확보하고 추상적으로 흐르기 쉬운 \_\_\_\_\_문제를 \_\_\_\_\_적이고 생생한 아픔으로 형상화함, **맥락을 바탕으로 한 감상**으로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에서 **‘\_\_\_\_\_ 맥락: 실제로 박완서 작가가 전쟁의 \_\_\_\_\_을 겪었다고 하는데, 이 작품은 작가의 \_\_\_\_\_적 체험이 녹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구나.’의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작년과 달리 작품 내외의 다양한 맥락을 바탕으로 한 감상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 나는 어머니를 힘껏 찍어 눌렀다.**(어머니를 \_\_\_\_\_시키기 위한 행위임) 온몸으로 타고 앉다시피 했다. **어머니의 경련처럼 괴로운 출렁임이 고스란히 전해 왔다.**(어머니의 \_\_\_\_\_을 온몸으로 생생하게 느낌)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이거나 약해져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되면 어머니가 나를 타고 앉게 될지도 모른다. 내가 아무리 **전심전력(온 마음과 온 힘)**으로 대결해도 어머니의 힘과는 **막상막하(더 낮고 더 못함의 차이가 거의 없음)**여서 **내 힘이 위태로워질 때마다**(어머니에게 ‘나’의 \_\_\_\_\_이 밀릴 때마다) 나는 어머니의 뺨을 쳤다. ]

([ ]: \_\_\_\_\_의 \_\_\_\_\_에 대한 환각으로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어머니와 어머니의 \_\_\_\_\_을 쳐서라도 맞서려고 하는 ‘나’의 \_\_\_\_\_적 상황)

“엄마, 정신 차려요. 엄마, 정신 차려요.”

처음으로 엄마의 뺨을 치고 나는 **[ 내 손이 저지른 패륜(悖倫)(인간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그러짐. 도는 그런 현상) ]**([ ]: 어머니의 \_\_\_\_\_을 친 행위)에 **경악(소스라치게 깜짝 놀람)**해서 두 번째는 더욱 세차게 때렸고, 어머니의 뺨에 솟아오른 내 손자국을 보고 **이것은 악몽 속 아니면 지옥일 거라는 일종의 비현실감이 패륜에 패륜을 서슴없이 보태게 했다.**(\_\_\_\_\_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_\_\_\_\_적 상황임, **내용 이해**를 묻는 문제에서 **‘어머니의 광란이 극에 달한 \_\_\_\_\_적인 상황에서 어머니를 \_\_\_\_\_시키기 위한 행동이다.’의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다.) 어머니의 힘도 무서웠지만 더 무서운 건 **어머니의 얼굴**(\_\_\_\_의 \_\_\_\_가 고스란히 드러난 모습 - 내면의 깊은 \_\_\_\_가 얼굴에 드러남)이었다. 그건 내 어머니의 얼굴이 아니었다. **이제 나는 어머니와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나름의 공포와 싸우고 있었다.**(‘\_\_\_\_’의 내면에 잠재된 과거에 대한 \_\_\_\_과 \_\_\_\_와 맞섬)

▶ ‘\_\_\_\_’는 다시 몸부림치는 어머니에 \_\_\_\_ 맞서서 \_\_\_\_ 함

▶ 위기 - 큰 수술을 마친 어머니는 전쟁 중 \_\_\_\_이 죽음을 맞이할 당시로 의식이 돌아가 환각 증세를 보임  
 [ [중략 부분의 줄거리] 한국 전쟁 당시 ‘나’의 오빠는 **인민군**(\_\_\_\_의 군대) 치하에서 어쩔 수 없이 북한 **의용군**(국가나 사회의 위급을 구하기 위하여 민간으로 조직된 군대. 또는 그런 군대의 군인)에 지원했다가 심신이 **피폐해진**(지치고 쇠약해진) 채로 겨우 도망친다. ‘나’의 가족은 오빠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산동네**(현저동 산 꼭대기)로 가서 숨어 지낸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오빠는 인민군 군관에게 발각되어 총상을 입고 죽게 된다.**(어머니가 본 \_\_\_\_, 어머니와 ‘나’의 \_\_) ]([ ]: \_\_\_\_의 시점에서 과거 전쟁 당시를 \_\_\_\_하는 \_\_\_\_을 취하고 있음, **작품의 구조를 묻는 문제에서 ‘역순행적 구성을 사용하여 과거의 이야기를 먼저 서술한 후 현재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의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 절정 - 한국 전쟁 당시 ‘나’의 오빠는 인민군 치하에서 의용군에 지원했다가 \_\_\_\_한 뒤, \_\_\_\_에게 들켜 총에 맞아 숨짐 마취가 깨어날 때 부린 **난동**(질서를 어지럽히며 마구 행동함. 또는 그런 행동)으로 어머니는 어찌나 많은 힘을 소모하였는지 [ 그 후 오랫동안 **탈진**(기운이 다 빠져 없어짐) 상태가 계속됐다. **부피도 무게도 호흡도 없이**(생명이 붙어 있다는 기미도 없이) 불면 날아갈 듯 한 장의 백지장이 되어 누워 있었다. ]([ ]: 어머니의 \_\_\_\_) 간혹 문병을 와 주는 친척이나 친구 보기에 도저히 회복될 가망이 없어 보였던지 모두 심각하게 고개를 저었다. [ 그들 중에는 어머니가 아예 의식이 없는 줄 알고 서슴지 않고 장례 절차 얘기를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상갓집에 온 줄 착각을 하는지 천수(天壽)를 누리셨으니 너무 서러워 말라고 우리를 위로하는 이도 있었다. **우리 역시 그런 그들을 말리거나 언짢게 생각하지 않았다.**(그들의 말이 별반 잘못되었다고 여기지 않음, 어머니의 \_\_\_\_에 대한 가족들의 태도 - 어머니의 \_\_\_\_을 받아들임) ]([ ]: 문병객들과 가족들은 어머니의 죽음을 이미 정해진 일로 받아들임) 한두 손갈 **유동식(流動食)**(소화되기 쉽도록 묽게 만든 음식)을 받아 넘긴다든가 주삿바늘을 찌를 때 찡그리는 것 외엔 어머니에게 의식이 남아 있다는 표시는 참으로 **미미했다.**(보잘것없이 아주 작았다.)

▶ 어머니의 \_\_\_\_가 \_\_\_\_해짐

어느 날, 문병을 와 준 내 친구도 이런 어머니를 **일별(一瞥)**(한 번 흘끗 봄)하더니 대뜸 이렇게 말했다.

[ “**수의**(염습할 때에 송장에 입히는 옷)는 장만해 났니?”

**“아니, 뭐 그런 끔찍한 걸 미리 장만을 하니?”**(\_\_\_\_에 대한 ‘나’의 \_\_\_\_적 태도가 드러남)

“애 좀 봐, 그럼 묘지는?”

“묘지? 그런 것도 미리 장만하는 거니?”

**“애 좀 봐, 그것도 안 해 났구나. 너 하여튼 알아줘야 해.”**(어머니의 \_\_\_\_를 \_\_\_\_하여 수의나 묘지 등을 준비하지 않은 ‘나’의 행동에 어처구니없어함) ]([ ]: 친구와 ‘나’의 \_\_\_\_가 드러남)

“뭘?”

“너 **나이롱**(‘가짜’의 \_\_\_\_적인 표현) 딸인 거, 말야.”

“나이롱 딸?”

“그래 나이롱 딸, 이런 엉터리. **아들도 없는데 딸까지 이런 순 엉터리니…….**(어머니의 \_\_\_\_를 소홀히 한 것을 \_\_\_\_함)”

나는 내가 나일론에다 순 엉터리인 건 상관없었지만 **어머니를 위해선 좀 안 된 것 같아**(어머니가 묻힐 곳도 없는 \_\_\_\_한 처지로 인식되는 것이 \_\_\_\_하여) 변명할 마음이 생겼다.

“우린 고향에 **선영(先塋)**(\_\_\_\_의 무덤. 또는 그 근처의 땅)이 있지 않니?”

“느이 고향이 어딘데?”

“몰라서 묻니? **개성 쪽, 개풍군**(‘나’의 \_\_\_\_, 작가의 체험이 반영된 부분 - \_\_\_\_인 박완서의 실제 \_\_\_\_이기도 함)이야.”



“거기 있는 선영이 무슨 소용이 있어?”(\_\_\_\_이 \_\_\_\_된 현실에 따른 인식, **내용 이해를 묻는 문제에서 ‘내 친구는 분단이 \_\_\_\_\_되어 통일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의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래도.”

[ “그래도라니? 변명치곤 너무 **구차스럽다**(말이나 행동이 떳떳하지 못하거나 버젓하지 못한 데가 있다.) 애. **이복**(북한)에 두고 온 논밭 **저당(抵當)**(부동산이나 동산을 채무의 담보로 잡거나 담보로 잡힘) 잡고 돈도 꺾 달랠라.” ]([ ]: ‘나의 말이 전혀 \_\_\_\_\_이 없다는 것을 \_\_\_\_\_함)

입이 험한 친구는 사정없이 나를 몰아세웠다.

“그게 아니라 일종의 **묵계(墨契)**(말 없는 가운데 뜻이 서로 맞음. 도는 그렇게 하여 성립된 약속) 같은 거지. 어머니는 비록 살아생전에 못 가셨더라도 돌아가신 후에만은 어머니가 선영 곁에 누우시길 바라실 거 아니니? **말씀은 안 하셔도 속으로 간절히 바라시는 걸**(\_\_\_\_된 상황이므로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해도 \_\_\_\_\_에 묻히고 싶은 바람이 있음, **구절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에서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고향에 묻히고 싶어 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의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뻘히 알면서 어떻게 딴 데다 묘지를 사 놓니? 그야 막상 돌아가시면 문제가 달라지겠지? **그때 가서 묘지를 사도 늦을 거 없잖아.**(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굳이 \_\_\_\_\_에 묻히지 못함을 확인시켜 드릴 필요는 없다는 의식) 묘지란 어차피 **사후의 집**(\_\_\_\_에 대한 ‘나의 인식을 보여주는 표현)이니까.”

▶ 어머니의 \_\_\_\_\_ 마련에 대한 ‘나’와 친구의 \_\_\_\_\_ 차이

이때 어머니가 눈을 떴다. 백지장 같은 모습과는 판판으로 또렷하고 생기 있는 눈이어서 친구는 앉은자리에서 **에구머니나 비명을 지르며 내 옷소매에 매달렸다.**(머지않아 입증할 것이라고 여긴 이에게서 돌연 \_\_\_\_\_를 발견하자 크게 놀람)

“**호숙 에미**(서술자인 ‘\_\_\_\_’), 나 좀 보자.”

어머니가 **정정한**(늙은 몸이 굳세고 건강한) 목소리로 나를 곁으로 불렀다.

“네, 어머니.”

나는 어머니에게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어머니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 **알맞은 온기와 악력(握力)**(손아귀로 무엇을 쥐는 힘) ]([ ]: 살아 있는 이의 \_\_\_\_\_)이 나를 놀라게도 서럽게도 했다.

“**나 죽거든 행여 묘지 쓰지 말거라.**”(사후에 땅에 \_\_\_\_\_되는 것을 원치 않음 → \_\_\_\_\_와 같은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길 원함)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상시처럼 잔잔하고 만만치 않았다.**(어머니가 환각 증세를 보였던 앞부분과 달리 평상시의 모습으로 돌아왔음)

“네? **다 들으셨군요?**(어머니가 자신의 \_\_\_\_\_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 - 친구와 함께 어머니의 \_\_\_\_\_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어머니도 들음)”

“그래, 마침 듣기 잘했다. 그렇잖아도 언제고 꼭 일러두려 했는데. 유언 삼아 일러두는 게니 잘 들어 뒀다 어김없이 시행토록 해라. **나 죽거든 내가 느이 오래비한테 해 준 것처럼 해 다오.**(사후에 시신을 \_\_\_\_\_하여 뺏가루를 \_\_\_\_\_ 땅을 향해 날려 주기를 바램, **내용 이해를 묻는 문제에서 ‘어머니는 죽은 뒤 고향 땅에 묻히고 싶어 하지만 분단 때문에 그럴 수 없음을 한탄한다.’의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렇게 해 다오. 누가 뭐라든 상관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건 너밖에 없기에 부탁하는 거다.**(전쟁 때 \_\_\_\_\_을 잃은 아픔을 \_\_\_\_\_하고 있는 딸만이 자신의 \_\_\_\_\_을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함)”

“오빠처럼요?”

“그래, 꼭 그대로, 그걸 설마 잊고 있진 않겠지?”

“**잊다니요.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나’ 역시 어머니처럼 \_\_\_\_\_을 잃은 \_\_\_\_\_를 잊지 못하고 그대로 \_\_\_\_\_함)”

어머니의 손의 악력은 정정했을 때처럼 아니, **나를 끌고 농바위 고개를 넘을 때**(자식에게 \_\_\_\_\_을 시키려는 의지로 \_\_\_\_\_을 떠나올 때)처럼 강한 **쫓대**(자기의 처지나 생각을 꺾고 내세우는 기질이나 기풍)와 고집을 느끼게 했다.

▶ 정신이 돌아온 뒤 ‘나’에게 \_\_\_\_\_을 하는 어머니

[ 오빠의 시신은 처음엔 무악재 고개 너머 벌판의 **밭머리**(밭이랑의 양쪽 끝이 되는 곳)에 가매장(假埋葬)했다. ]([ ]: 제대로된 형식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채로 오빠의 \_\_\_\_\_를 치를 만큼 \_\_\_\_\_한 상황이었음) **헐렁병사자**(떠돌아다니다가 타향에서 병들어 죽은 사람) 취급하듯이 형식과 절차 없는 매장이었지만 **무정부 상태의 텅 빈 도시**(서울을 \_\_\_\_\_당한 상태였음)에서 우리 모녀의 가냘픈 힘만으로 그것 이상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서울이 **수복(收復)**(잃었던 땅이나 권리 등을 되찾음)되고 화장장이 정상화되자마자 어머니는 오빠를 화장할 것을 의논해 왔다. 그때 우리와 합하게 된 **올케**(어머니와 \_\_\_\_\_을 빛는 인물, **인물에 대해 묻는 문제에서 '올케: 어머니와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로서 오빠의 죽음의 원인이 어머니에게 있다고 믿고 있다.'**의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작품의 등장인물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덤이라도 남겨 줘야 한다고 공동묘지라도 **이장**(무덤을 옮겨 씌)할 것을 주장했다. **어머니는 오빠를 죽게 한 것이 자기 죄처럼, 젊어 과부 된 며느리한테 기가 죽어 지냈었는데**(눈앞에서 죽어 간 \_\_\_\_\_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어머니의 \_\_\_\_\_) 그때만은 조금도 양보할 기세가 아니었다. 남편의 임종도 못 보고 과부가 된 것도 억울한데 그 무덤까지 **말살**(있는 사물을 몽개어 아주 없애 버림)하려는 시어머니의 모진 마음이 **야속하고**(무정한 행동이나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 섭섭하게 여겨져 언짢고) 정떨어졌으면만 그런 기세 속엔 거역할 수 없는 위엄과 비통한 의지가 담겨 있어 **종당**(일의 마지막)엔 올케도 **순종을 하고 말았다.**(어머니의 \_\_\_\_\_과 비통한 \_\_\_\_\_를 거역할 수 없었음)

**오빠의 삶은 연기가 되고 뼈는 한 줌의 가루가 되었다.**(오빠의 시신을 \_\_\_\_\_함) 어머니는 앞장서서 강화로 가는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우리 **묵묵히**(말없이 잠잠하게) 뒤따랐다. 강화도에서 내린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서 [ 멀리 **개풍군 땅**(가족의 \_\_\_\_\_이 있는 곳)이 보이는 바닷가에 섰다. ]([ ]: 오빠의 \_\_\_\_\_를 \_\_\_\_\_쪽으로 날리기 위해서) 그리고 **지척(咫尺)**(아주 가까운 거리)으로 보이되 갈 수 없는 땅을 향해 그 **한 줌의 먼지**(오빠의 뱃가루)를 훑훑 날렸다. 개풍군 땅은 우리 가족의 선영이 있는 땅이었지만 선영에 못 묻히는 한을 그런 방법으로 풀고 있다곤 생각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모습엔 운명에 순종하고 한을 지그시 품고 식이는**(\_\_\_\_\_이 가져온 비참한 \_\_\_\_\_에 \_\_\_\_\_하는) 약하고 다소곳한 여자 티는 조금도 없었다. **방금 출전(出戰)하려는 용사처럼 씩씩하고 도전적이었다.**(오빠의 유골을 뿌리는 어머니의 모습, 남편의 \_\_\_\_\_과 그것이 가져온 개인의 \_\_\_\_\_을 \_\_\_\_\_하려는 어머니의 의지, **구절의 이해를 묻는 문제에서 '어머니는 \_\_\_\_\_과 그것이 가져온 개인의 \_\_\_\_\_에 정면으로 맞서고자 하는 \_\_\_\_\_를 보이고 있다.'**의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 어머니는 한 줌의 먼지와 바람으로써 **너무도 엄청난 것**(\_\_\_\_\_의 상처와 \_\_\_\_\_의 비극)과의 싸움을 시도하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그 한 줌의 먼지와 바람은 결코 미약한 게 아니었다.**(자신에게 \_\_\_\_\_를 준 \_\_\_\_\_과 싸우는 어머니 나름의 방법이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머니를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간,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단이란 괴물**(\_\_\_\_\_으로 \_\_\_\_\_꺼리 피를 흘렸던 전쟁 중에 \_\_\_\_\_까지 잃게 됨)을 홀로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 ]: 자신을 둘러싼 \_\_\_\_\_과의 갈등에서 끝까지 \_\_\_\_\_하고자 하는 어머니의 \_\_\_\_\_적인 태도)

▶ 어머니가 오빠의 \_\_\_\_\_를 \_\_\_\_\_을 향해 날림

어머니는 나더러 그때 그 자리에서 또 **그 짓**(\_\_\_\_\_이 보이는 강화도의 바닷가에서 \_\_\_\_\_를 바람에 날리는 것 → \_\_\_\_\_이 가져온 \_\_\_\_\_과 정면으로 맞서는 것, **특정 표현에 드러난 서술자의 심리를 묻는 문제에서 '가족의 \_\_\_\_\_대한 고통을 환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드러낸다.'**의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을 하란다. **이젠 자기가 몸소 그 먼지와 바람이 될 테니 나더러 그 짓을 하란다.**(\_\_\_\_\_이 가져온 비극과 정면으로 맞서려는 \_\_\_\_\_의 표현) **그 후 30년이란 세월이 흘렀건만 그 괴물을 무화(無化)시키는 길은 정녕 그 짓밖에 없는가?**(세월이 흘러도 혈육을 잃은 \_\_\_\_\_은 해소되지 않고, \_\_\_\_\_상태 또한 \_\_\_\_\_되고 있음)

“너한테 미안하구나, 그렇지만 부탁한다.”

어머니도 그 짓밖에 물려줄 수 없는 게 진정으로 미안한 양 표정이 애달프게 이지러졌다.

**아아, 나는 그 짓을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어머니의 \_\_\_\_\_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 → ‘나’가 어머니의 비극이 \_\_\_\_\_적 \_\_\_\_\_임을 절감하고 어머니를 \_\_\_\_\_하게 됨)

어머니는 아직도 **투병 중**(① 어머니가 다리 부상 후 큰 \_\_\_\_\_을 받고 아직도 \_\_\_\_\_되지 않은 상황임을 뜻함, ② \_\_\_\_\_이 극복되지 않는 한 어머니의 \_\_\_\_\_적 상처가 \_\_\_\_\_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함, **특정 표현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묻는 문**

제에서 ‘ \_\_\_ 과 \_\_\_ 으로 인한 \_\_\_ 이 쉽게 낫지 않고 여전히 \_\_\_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의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작품의 마지막 문장의 의미에 대해 서술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입니다.

▶ ‘나’에게 미안해하며 \_\_\_ 을 실행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는 어머니

▶ 결말 - 어머니는 ‘나’에게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뺨가루를 북쪽의 \_\_\_ 땅이 보이는 곳에 뿌려 달라고 말함  
- 「엄마의 말뚝 2」

### 연계 작품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너그럽고  
빛나는  
봄의 그 눈짓은,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그 매운 눈보라 몰고 왔지만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은, 삼천리 마을마다  
우리들 가슴속에서  
움트리라.

움터서,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쇠붙이들  
눈 녹이듯 흐물흐물  
녹여 버리겠지.

- 「봄은」

★ 「엄마의 말뚝」과 비교하여 출제된 내용

- 「엄마의 말뚝」의 ‘어머니’가 소망하는 \_\_\_ 상황의 극복이 「봄은」에서 ‘\_\_\_’이라는 시어로 제시되었음



물로 사흘 배 사흘  
 먼 삼천 리  
 더더구나 걸어 넘는 먼 삼천 리  
 삭주 구성(朔州龜城)은 산(山)을 넘은 육천 리요

물 맞아 함박이 젖은 제비도  
 가다가 비에 걸려 오노랍니다.  
 저녁에는 높은 산  
 밤에는 높은 산

삭주 구성은 산 넘어  
 먼 육천 리  
 가끔가끔 꿈에는 사오천 리  
 가다오다 돌아오는 길이겠지요

서로 떠난 몸이길래 몸이 그리워  
 님을 둔 곳이길래 곳이 그리워  
 못 보았소 새들도 집이 그리워  
 남북으로 오며가며 아니합디까

들 끝에 날아가는 나는 구름은  
 반쯤은 어디 바로 가 있을 텐고  
 삭주 구성은 산 넘어  
 먼 육천 리

- 「삭주구성」

★ 「엄마의 말뚝」과 비교하여 출제된 내용

- 「삭주구성」의 ‘\_\_\_\_\_’는 그리운 ‘삭주 구성’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엄마의 말뚝」의 ‘\_\_\_\_\_’와 비슷한 처지임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火山)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姿勢)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저어 서로 응시하는 쌀쌀한 풍경. 아름다운 풍토는 이미 고구려(高句麗) 같은 정신도 신라(新羅) 같은 이야기도 없는가.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 …… 우리 무엇에 불안한 얼굴의 의미(意味)는 여기에 있었던가.

모든 유혈(流血)은 꿈같이 가고 지금도 나무 하나 안심하고 서 있지 못할 광장(廣場). 아직도 정맥은 끊어진 채 휴식(休息)인가, 야위어가는 이야기뿐인가.

언제 한 번은 불고야 말 독사의 혀 같은 징그러운 바람이여. 너도 이미 아는 모진 겨우살이를 또 한 번 겪어야 하는가. 아무런 죄(罪)도 없이 피어난 꽃은 시방의 자리에서 얼마를 더 살아야 하는가. 아름다운 길은 이뿐인가.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둠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火山)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姿勢)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 「휴전선」

★ 「엄마의 말뚝」과 비교하여 출제된 내용

- '\_\_\_\_\_ '는 서로 상호 적대하는 태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엄마의 말뚝」의 '\_\_\_\_\_ '과 의미가 상통함
- '\_\_\_\_\_ '은 「엄마의 말뚝」의 어머니가 처한 현실과 달리 \_\_\_\_\_ 은 공간임
- '\_\_\_\_\_ '은 「엄마의 말뚝」의 어머니에게 상처를 준 \_\_\_\_\_ 을 암시함
- '\_\_\_\_\_ '는 「엄마의 말뚝」의 어머니가 겪은 \_\_\_\_\_ 을 의미함
- 「엄마의 말뚝」의 어머니가 바라는 것과 달리 '\_\_\_\_\_ '은 \_\_\_\_\_ 의 극복이 아닌, 일시적인 \_\_\_\_\_ 를 뜻함

고1 국어  
신사고

2022 고1 국어 신사고 | 6(1)(2) 엄마의 말뚝 내신 암기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암기용

1. 제재 개관

갈래	전후 소설, 중편 소설, 연작 소설
성격	자전적, 회상적
제재	전쟁으로 인한 상처
배경	시간: 한국 전쟁 당시와 분단이 고착화된 시기, 공간: 서울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주제	전쟁이 남긴 상처와 분단 극복의 의지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쟁의 아픔을 망각해 가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담고 있음</li> <li>• 현재 시점에서 한국 전쟁 당시를 회상하는 내용을 삽입한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음</li> <li>• 세 편의 이야기가 각각 독립된 완결성을 지니면서 서사적으로 연결된 연작 소설 중 한 편임</li> </ul>

2. 전체 구성

발단	친구를 만나기 위해 외출한 '나'는 계속해서 불길한 예감이 들
전개	외출에서 돌아온 '나'는 가족들에게서 친정어머니가 눈길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감
위기	큰 수술을 마친 어머니는 전쟁 중 아들이 죽음을 맞이할 당시로 의식이 돌아가 환각 증세를 보임
절정	한국 전쟁 당시 '나'의 오빠는 인민군 치하에서 의용군에 지원했다가 탈출한 뒤, 군관에게 들켜 총에 맞아 숨짐
결말	어머니는 '나'에게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땃가루를 북쪽의 고향 땅이 보이는 곳에 뿌려 달라고 말함

3. 어머니의 상황

눈길에서 넘어져 크게 다침



다리 골절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남



딸('나')이 홀로 남아 병실을 지키는 밤에 마취에서 깨어남

4. 어머니의 행위와 의식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중하고도 규칙적으로 두 손으로 허공을 휘젓고 있음</li> <li>• 힘차고 또렷한 목소리로 빨래를 개켜 놓지 않았다고 꾸중함</li> </ul>
의식	오래전 어린 자녀들을 키우던 시절, 뒤섞인 빨래들을 개고 있는 상황으로 의식이 돌아가 있음

5. 연작 소설 전체에서 '말뚝'의 의미

1편	<p>'나'의 가족이 고향을 떠나 서울에 터전을 잡게 된 과정과 홀로 두 자녀를 억척스럽게 키워 낸 엄마의 모습 및 '나'의 성장을 그린 이야기</p> <p>→ 서울에서 터전을 잡고 자식들을 교육시키는 어머니의 집념과 의지</p> <p>→ 고향을 떠나 서울에 와서 정착한 삶의 터전</p>
----	---



2편
<p>안정된 삶을 살아가던 '나'가 엄마의 <b>다리</b> 부상을 계기로, <b>한국 전쟁</b> 당시 인민군 <b>군관</b>의 총에 <b>오빠</b>를 잃게 된 참담한 기억을 떠올리며 <b>엄마</b>를 <b>이해</b>하게 되는 이야기</p> <p>→ 오빠의 <b>죽음</b>으로 인해 <b>엄마</b>의 가슴에 박힌 <b>상처</b>와 <b>한</b></p> <p>→ <b>한국 전쟁</b>으로 인한 우리 <b>민족</b>의 <b>한</b></p>
3편
<p>수술 후유증으로 7년여를 투병하던 <b>엄마</b>가 <b>화장</b>되기를 바랐던 생전 <b>소망</b>과는 달리 돌아가신 후 서울 근교의 <b>공원묘지</b>에 묻히기까지의 이야기</p> <p>→ 죽어서라도 <b>분단</b>이라는 <b>비극적</b> 현실과 맞서려는 어머니의 <b>의지</b></p> <p>→ <b>엄마</b>가 깨우쳐 준 끈질긴 <b>생명</b> 의식으로서, '나'의 <b>기념비</b>를 뜻함</p>

6. 어머니의 이상 행동을 바라보는 '나'와 간호사의 인식 차이

'나'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b>변화</b> 를 심상치 않게 여김
↕
간호원
어머니의 <b>증세</b> 가 차차 나아질 것이라며 <b>대수롭지 않게</b> 여김

7. 어머니의 행동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빨래</b>를 개는 동작을 취하다가 손바닥을 보이며 <b>방어</b>의 자세를 취함</li> <li>• <b>공포</b>에 질린 소리로 '<b>그놈</b>이 또 왔다'며 속삭임</li> </ul>
↓
과거 <b>일상적</b> 행위를 하던 상황에서 갑자기 <b>공포</b> 의 대상을 만났을 때로 의식이 바뀌었음

8. 어머니의 발언에 담긴 의식

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놈 또 왔다. 뭘 하고 있냐? 느이 오래빌 숨겨야지. 어서."</li> <li>• "그럼 느이 오래빌 벌써 잡아갔냐."</li> </ul>
↓
의식
과거 <b>전쟁</b> 당시 <b>인민군</b> <b>군관</b> 이 집에 찾아왔던 때의 의식으로, 어떻게든 <b>아들</b> 을 숨기려 함

9. 호칭에 담긴 인물의 심리

'나으리, 선생님'
<b>군관</b> 을 <b>높여</b> 부름. 비굴하게나마 <b>아들</b> 을 지키려는 <b>절박한</b> 심리가 담겨 있음
↓
'이노옴'
<b>군관</b> 을 <b>비속하게</b> 부름. <b>아들</b> 을 <b>죽음</b> 으로 몰고 간 <b>군관</b> 에 대한 <b>분노</b> 와 <b>적개심</b> 이 담겨 있음

10. 어머니의 정신적 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이를 갈음</li> <li>• 기성을 지르며 머리카락을 쥐어뜯음</li> <li>• 몸에 부착한 의료 기구들을 뽑아냄</li> </ul>
↓
어머니는 <b>환각</b> 을 통해 눈앞에서 <b>아들</b> 이 <b>죽임</b> 을 당하는 장면을 마주하고, <b>슬픔</b> 과 <b>분노</b> 가 극에 달하게 됨

TEST 1단계

1. 제재 개관

갈래	□후 소설, □편 소설, 연□ 소설
성격	자□적, □상적
제재	□쟁으로 인한 상□
배경	시간: □국 □쟁 당시와 분□이 고착화된 시기, 공간: 서□
시점	1인칭 □인공 시점
주제	□쟁이 남긴 □처와 □단 극□의 의지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쟁의 아픔을 망□해 가는 현실에 대한 비□적 인식을 담고 있음</li> <li>현□ 시점에서 □국 □쟁 당시를 회□하는 내용을 삽입한 □순□적 구성을 취하고 있음</li> <li>□편의 이야기가 각각 □립된 □결성을 지니면서 □사적으로 연결된 □작 소설 중 한 편임</li> </ul>

2. 전체 구성

발단	친구를 만나기 위해 외□한 '나'는 계속해서 □길한 예감이 들
전개	외□에서 돌아온 '나'는 가족들에게서 □정□머니가 눈길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병□에 감
위기	큰 수□을 마친 어머니는 □쟁 중 아들이 □음을 맞이할 당시로 의식이 돌아가 □각 증세를 보임
절정	□국 □쟁 당시 '나'의 □빠는 인민군 처하에서 □용군에 지원했다가 탈출한 뒤, 군□에게 들켜 총에 맞아 숨짐
결말	어머니는 '□'에게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가루를 북쪽의 고□ 땅이 보이는 곳에 □려 달라고 말함

3. 어머니의 상황

눈□에서 넘어져 크게 다침



□리 골절 수□이 성공적으로 끝남



□('□')이 홀로 남아 병실을 지키는 밤에 □취에서 깨어남

4. 어머니의 행위와 의식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하고도 규□적으로 두 손으로 허공을 휘젓고 있음</li> <li>□차고 또□한 목소리로 빨래를 개켜 놓지 않았다고 □중함</li> </ul>
의식	오래전 □린 자□들을 키우던 시절, 뒤섞인 □래들을 개고 있는 상황으로 의식이 돌□가 있음

5. 연작 소설 전체에서 '말뚝'의 의미

1편
<p>'나'의 가족이 고향을 떠나 □울에 터□을 잡게 된 과정과 홀□ 두 자녀를 억척스럽게 키워 낸 □마의 모습 및 '□'의 성장을 그린 이야기</p> <p>→ □울에서 터□을 잡고 자식들을 □육시키는 어머니의 □념과 의□</p> <p>→ □향을 떠나 서□에 와서 정착한 삶의 터□</p>
2편
<p>안□된 삶을 살아가던 '나'가 엄마의 □리 부상을 계기로, □국 □쟁 당시 인민군 군□의 총에 □빠를 잃게 된 참담한 기억을 떠올리며 □마를 이□하게 되는 이야기</p> <p>→ 오빠의 □음으로 인해 □마의 가슴에 박힌 □처와 □</p> <p>→ □국 □쟁으로 인한 우리 □족의 □</p>

3편
수술 후유증으로 7년여를 투병하던 □마가 □장 되기를 바랐던 생전 소□과는 달리 돌아가신 후 서울 근교의 □원□지에 묻히기까지의 이야기 → 죽어서라도 □단이라는 □극적 현실과 맞서려는 어머니의 □지 → □마가 깨우쳐 준 끈질긴 생□ 의식으로서, '나'의 기□비를 뜻함

6. 어머니의 이상 행동을 바라보는 '나'와 간호사의 인식 차이

'나'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변□를 심상치 않게 여김
↕
간호원
어머니의 □세가 차차 나아질 것이라며 대□롭지 않게 여김

7. 어머니의 행동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래를 개는 동작을 취하다가 손바닥을 보이며 방□의 자세를 취함</li> <li>공□에 질린 소리로 '그□이 또 왔다'며 속삭임</li> </ul>
↓
과거 일□적 행위를 하던 상황에서 갑자기 □포의 대상을 만났을 때로 의식이 바뀌었음

8. 어머니의 발언에 담긴 의식

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그놈 또 왔다. 뭘 하고 있냐? 느이 오래빌 숨겨야지. 어서."</li> <li>"그럼 느이 오래빌 벌써 잡아갔냐."</li> </ul>
의식
과거 □쟁 당시 인□군 군□이 집에 찾아왔던 때의 의식으로, 어떻게든 아□을 숨기려 함

9. 호칭에 담긴 인물의 심리

'나으리, 선생님'
군□을 □여 부름. 비굴하게나마 아□을 지키려는 □박한 심리가 담겨 있음
↓
'이노옴'
군□을 □속하게 부름. 아□을 □음으로 몰고 간 군□에 대한 □노와 적□심이 담겨 있음

10. 어머니의 정신적 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이를 갉</li> <li>기성을 지르며 머리카락을 쥐어뜯음</li> <li>몸에 부착한 의료 기구들을 뽑아냄</li> </ul>
↓
어머니는 □각을 통해 눈앞에서 아□이 □임을 당하는 장면을 마주하고, 슬□과 분□가 극에 달하게 됨

11. '나'의 태도 변화

어머니의 □란을 목격하고 □움을 청하러 나감.
↓
어머니의 아□을 다른 사람들이 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함.
↓
아무의 □움도 청하지 않고 혼□서 어머니와 맞서리라 마음먹음.



TEST 2단계

1. 제재 개관

갈래	□□ □□, □□ □□, □□ □□
성격	□□적, □□적
제재	□□으로 인한 □□
배경	시간: □□ □□ 당시와 □□이 고착화된 시기, 공간: □□
시점	□인칭 □□□ 시점
주제	□□이 남긴 □□와 □□ □□의 의지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 아픔을 □□해 가는 현실에 대한 □□적 인식을 담고 있음</li> <li>• □□ 시점에서 □□ □□ 당시를 □□하는 내용을 삽입한 □□□적 구성을 취하고 있음</li> <li>• 세 편의 이야기가 각각 □□된 □□성을 지니면서 □□적으로 연결된 □□ 소설 중 한 편임</li> </ul>

2. 전체 구성

발단	친구를 만나기 위해 □□한 '나'는 계속해서 □□한 예감이 듦
전개	□□에서 돌아온 '나'는 가족들에게서 □□□□□가 눈길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에 감
위기	큰 □□을 마친 어머니는 □□ 중 아들이 □□을 맞이할 당시로 의식이 돌아가 □□ 증세를 보임
절정	□□ □□ 당시 '나'의 □□는 인민군 처하에서 □□□에 지원했다가 탈출한 뒤, □□에게 들켜 총에 맞아 숨짐
결말	어머니는 '□'에게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를 북쪽의 □□ 땅이 보이는 곳에 □□ 달라고 말함

3. 어머니의 상황

□□에서 넘어져 크게 다침
↓
□□ 골절 □□이 성공적으로 끝남
↓
□('□')이 홀로 남아 병실을 지키는 밤에 □□에서 깨어남

4. 어머니의 행위와 의식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고도 □□적으로 두 손으로 허공을 휘젓고 있음</li> <li>• □차고 □□한 목소리로 빨래를 개켜 놓지 않았다고 □□함</li> </ul>
의식	오래전 □□ □□들을 키우던 시절, 뒤섞인 □□들을 개고 있는 상황으로 의식이 □□□ 있음

5. 연작 소설 전체에서 '말뚝'의 의미

1편
'나'의 가족이 고향을 떠나 □□에 □□을 잡게 된 과정과 □□ 두 자녀를 억척스럽게 키워 낸 □□의 모습 및 '□'의 □□을 그린 이야기 → □□에서 □□을 잡고 자식들을 □□시키는 어머니의 □□과 □□ → □□을 떠나 □□에 와서 정착한 삶의 □□
2편
□□된 삶을 살아가던 '나'가 엄마의 □□ 부상을 계기로, □□ □□ 당시 인민군 □□의 총에 □□를 잃게 된 참담한 기억을 떠올리며 □□를 □□하게 되는 이야기 → 오빠의 □□으로 인해 □□의 가슴에 박힌 □□와 □□ → □□ □□으로 인한 우리 □□의 □□

3편
수술 후유증으로 7년여를 투병하던 □□가 □□ 되기를 바랐던 생전 □□과는 달리 돌아가신 후 서울 근교의 □□□□에 묻히기까지의 이야기 → 죽어서라도 □□이라는 □□적 현실과 맞서려는 어머니의 □□ → □□가 깨우쳐 준 끈질긴 □□ 의식으로서, '나'의 □□□를 뜻함

6. 어머니의 이상 행동을 바라보는 '나'와 간호사의 인식 차이

'나'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를 심상치 않게 여김
↕
간호원
어머니의 □□가 차차 나아질 것이라며 □□□지 않게 여김

7. 어머니의 행동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를 개는 동작을 취하다가 손바닥을 보이며 □□의 자세를 취함</li> <li>□□에 질린 소리로 '□□이 또 왔다'며 속삭임</li> </ul>
↓
과거 □□적 행위를 하던 상황에서 갑자기 □□의 대상을 만났을 때로 의식이 바뀌었음

8. 어머니의 발언에 담긴 의식

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그놈 또 왔다. 뭘 하고 있냐? 느이 오래빌 숨겨야지. 어서."</li> <li>"그럼 느이 오래빌 벌써 잡아갔냐."</li> </ul>
의식
과거 □□ 당시 □□□ □□이 집에 찾아왔던 때의 의식으로, 어떻게든 □□을 숨기려 함

9. 호칭에 담긴 인물의 심리

'나으리, 선생님'
□□을 □어 부름. 비굴하게나마 □□을 지키려는 □□한 심리가 담겨 있음
↓
'이노옴'
□□을 □□하게 부름. □□을 □□으로 몰고 간 □□에 대한 □□와 □□□이 담겨 있음

10. 어머니의 정신적 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이를 갈</li> <li>기성을 지르며 머리카락을 쥐어뜯음</li> <li>몸에 부착한 의료 기구들을 뽑아냄</li> </ul>
↓
어머니는 □□을 통해 눈앞에서 □□이 □□을 당하는 장면을 마주하고, □□과 □□가 극에 달하게 됨

11. '나'의 태도 변화

어머니의 □□을 목격하고 □□을 청하러 나감.
↓
어머니의 □□을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함.
↓
아무의 □□도 청하지 않고 □□서 어머니와 맞서리라 마음먹음.

TEST 3단계

1. 제재 개관

갈래	_____, _____, _____
성격	____적, ____적
제재	____으로 인한 ____
배경	시간: _____ 당시와 ____이 고착화 된 시기, 공간: _____
시점	____인칭 _____ 시점
주제	____이 남긴 ____와 _____의 의지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____의 아픔을 ____해 가는 현실에 대한 ____적 인식을 담고 있음</li> <li>• ____ 시점에서 _____ 당시를 ____하는 내용을 삽입한 _____적 구성을 취하고 있음</li> <li>• ____편의 이야기가 각각 ____된 ____성을 지니면서 ____적으로 연결된 ____소설 중 한 편임</li> </ul>

2. 전체 구성

발단	친구를 만나기 위해 ____한 '나'는 계속해서 ____한 예감이 들
전개	____에서 돌아온 '나'는 가족들에게서 _____가 눈길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____에 감
위기	큰 ____을 마친 어머니는 ____중 아들이 ____을 맞이할 당시로 의식이 돌아가 ____증세를 보임
절정	_____ 당시 '나'의 ____는 인민군 치하에서 _____에 지원했다가 탈출한 뒤, ____에게 들켜 총에 맞아 숨짐
결말	어머니는 '____'에게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_____를 북쪽의 ____땅이 보이는 곳에 ____달라고 말함

3. 어머니의 상황

\_\_\_\_에서 넘어져 크게 다침

↓

\_\_\_\_골절 \_\_\_\_이 성공적으로 끝남

↓

\_\_\_\_('\_\_\_\_')이 홀로 남아 병실을 지키는 밤에 \_\_\_\_에서 깨어남

4. 어머니의 행위와 의식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____하고도 ____적으로 두 손으로 허공을 휘젓고 있음</li> <li>• ____차고 ____한 목소리로 빨래를 개켜 놓지 않았다고 ____함</li> </ul>
의식	오래전 _____들을 키우던 시절, 뒤섞인 ____들을 개고 있는 상황으로 의식이 ____있음

5. 연작 소설 전체에서 '말뚝'의 의미

1편
'나'의 가족이 고향을 떠나 ____에 ____을 잡게 된 과정과 ____두 자녀를 억척스럽게 키워 낸 ____의 모습 및 '____'의 ____을 그린 이야기 → ____에서 ____을 잡고 자식들을 ____시키는 어머니의 ____과 ____ → ____을 떠나 ____에 와서 정착한 삶의 ____
2편
____된 삶을 살아가던 '나'가 어머니의 ____부상을 계기로, _____ 당시 인민군 ____의 총에 ____를 잃게 된 참담한 기억을 떠올리며 ____를 ____하게 되는 이야기 → 오빠의 ____으로 인해 ____의 가슴에 박힌 ____와 ____ → _____으로 인한 우리 ____의 ____



3편
수술 후유증으로 7년여를 투병하던 ____가 ____ 되기를 바랐던 생전 ____과는 달리 돌아가신 후 서울 근교의 _____에 묻히기까지의 이야기 → 죽어서라도 ____이라는 ____적 현실과 맞서려는 어머니의 ____ → ____가 깨우쳐 준 끈질긴 ____ 의식으로서, '나'의 _____를 뜻함

6. 어머니의 이상 행동을 바라보는 '나'와 간호사의 인식 차이

'나'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____를 심상치 않게 여김
↓
간호원
어머니의 ____가 차차 나아질 것이라며 지 않게 여김

7. 어머니의 행동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____를 개는 동작을 취하다가 손바닥을 보이며 ____의 자세를 취함</li> <li>• ____에 질린 소리로 '____이 또 왔다'며 속삭임</li> </ul>
↓
과거 ____적 행위를 하던 상황에서 갑자기 ____의 대상을 만났을 때로 의식이 바뀌었음

8. 어머니의 발언에 담긴 의식

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놈 또 왔다. 뭘 하고 있냐? 느이 오래빌 숨겨야지. 어서."</li> <li>• "그럼 느이 오래빌 벌써 잡아갔냐."</li> </ul>
의식
과거 ____ 당시 _____이 집에 찾아왔던 때의 의식으로, 어떻게든 ____을 숨기려 함

9. 호칭에 담긴 인물의 심리

'나으리, 선생님'
____을 ____여 부름. 비굴하게나마 ____을 지키려는 ____한 심리가 담겨 있음
↓
'이노옴'
____을 ____하게 부름. ____을 ____으로 몰고 간 ____에 대한 ____와 ____이 담겨 있음

10. 어머니의 정신적 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이를 갠</li> <li>• 기성을 지르며 머리카락을 쥐어뜯음</li> <li>• 몸에 부착한 의료 기구들을 뽑아냄</li> </ul>
↓
어머니는 ____을 통해 눈앞에서 ____이 ____을 당하는 장면을 마주하고, ____과 ____가 극에 달하게 됨

11. '나'의 태도 변화

어머니의 ____을 목격하고 ____을 청하러 나감.
↓
어머니의 ____을 다른 사람들이 ____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함.
↓
아무의 ____도 청하지 않고 ____서 어머니와 맞서리라 마음먹음.